

# 「韓末 義兵抗爭」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教 養 科 金 世 圭  
助 教 授

## 目 次

I. 緒 言	2) 湖南義兵의 活動
II. 第一期 (1895 ~ 1896)	3) 南韓大討伐作戰
III. 第二期 (1905 ~ 1907)	V. 第四期 (1910 ~ 1912)
IV. 第三期 (1907 ~ 1909)	VI. 湖南地方 義兵의 性格
1) 全國義兵의 概況	VII. 結 言

## I. 緒 言

韓末의 激變하는 風雲속에 衛正斥邪思想과 採西思想이 二律背反의으로 갈등하는 속에 外勢에 대한 危機意識은 日本이라는 不當한 外勢의 橫暴에 대한 反撥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는 乙未事變을 契機로 大衆化하게 되었다.

大衆運動에 關하여 崔昌圭氏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個別民族이 遂行하는 歷史推進에 너지를 이룸하여 民族運動이라 한다. 이러한 민족운동은 대부분의 경우 한 民族史의 거룩한 大義를 隨伴한다. 그것은 民族運動이 해결하려는 歷史矛盾의 대부분은 異民族이 밖에서 부터 던지려는 他律的 不平等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異民族이 일으키는 不當한 民族矛盾에 抵抗하는 것은 純朴하고도 義롭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義로운 민족운동도 그것이 甘受해야 하는 狀況은 언제나 切迫한 現實로 연결된다. 그것은 그 운동이 抵抗하려는 民族的 矛盾이 극복되지 않을 때에는 主體民族은 存立 그 자체를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民族의 거룩한 大義에는 언제나 民族運命의 절박한 狀況에 自存의 위대한 생명력을 주는 것이 民族運動이 된다. 이런점에서 민족운동은 歷史의 훌륭한 創造力을 個別民族에게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sup>1)</sup>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民族矛盾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났던 義兵에 대해 朴殷植이 이미 지적한 대로

“義兵者 民軍也 國家有急 直以義起 不待朝令之徵發 從軍敵愾者也 吾族素敦忠義自三國時代 對於外患而 義兵之樹立最位卓著 在李朝宣朝時被倭寇之 蹂躪者八年而若儒林, 若鄉紳,

<sup>1)</sup> 崔昌圭, 抗日 民族運動의 系譜的 考察. 新東亞, 71年 9月號.

若僧侶之屬 皆奮起草野…… 決死敢鬪 前仆後繼 迄於敵退乃已…… 扶植綱常 恢復疆土 大有賴焉則 義兵者 吾族之國粹也…… 蓋自保護條約以後 除四五賊臣及 一進亂黨外 國民皆決死反對 義兵爲最烈而 多儒林學派及 解散軍人也<sup>2)</sup>”

라고 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義兵은 民軍으로 國家가 危急할때 朝令을 기다리지 않고 義起하여 從軍하는 自發的인 民軍으로 형성된 軍組織이라는 義兵의 일반적인 성격을,

둘째, 歷史적으로 그러한 義兵의 活動은 三國時代까지 소급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宣朝때의 壬辰倭亂의 義兵과 韓末의 義兵이 가장 뚜렷한 것이었다고 義兵의 구체적인 屬性을 그 역사적 存在形態로 論하고 있으며,

셋째, 그와 같은 義兵運動의 思想的 基盤은 우리 민족 본래의 屬性으로 忠義倫理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忠義精神에 의한 擧義, 殉國의 투쟁은 민족의 綱常을 扶植시키고, 國家의 疆土를 회복시킴으로서 民族史에 義兵이 차지하는 殊勲과 卓節은 실로 빛나는 것이며 그러기에 義兵은 우리 민족의 精粹라고 찬양하고 있다<sup>3)</sup>.

韓末義兵은 甲午 東學農民運動이 실패한 뒤 農民軍의 지도자가 處斷된 객관적 情勢아래 지도층을 잃은 농민들은 衛正斥邪를 부르짖는 儒生을 義兵將으로 하여 義兵部隊로 모여들어 反日鬪爭을 전개 하였으니 이들 儒生들의 衛正斥邪思想 가운데는 허물어져 가는 封建制度와 倫理를 再整備 強化하는 復舊의인 思想이 있기는 하지만 日本의 朝鮮侵略強化라는 객관적 情勢下 즉 朝鮮民族對 日本民族이라는 矛盾이 중요한 側面으로 변하여 갈 때 儒生들이 갖은 斥洋斥倭思想은 時代的 要請이었고 농민들은 儒生 義兵將들과 손잡고 矛盾의 側面에서 용감하게 투쟁하였던 것이다.

本稿는 韓末義兵抗爭을 단계적인 형태변화와 성격에 따라 第一期(1895~1896), 第二期(1905~1907), 第三期(1907~1909), 第四期(1910~1912)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湖南地方을 중심으로 맹렬하게 전개되었던 義兵抗爭을 통하여 韓末 義兵의 樣相과 그후 反日運動의 動向을 파악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第一期(1895 ~ 1896)

1895年 10月 8日 새벽 日本公使 미우라(三浦梧樓)의 지령을 받은 一團의 日本 浪人패들은 景福宮에 亂入하여 玉壺樓에서 閔妃를 燒殺하는 乙未事變을 일으켰다. 그리고 李完用, 李範晉등 親露派를 제거하고 徐光範, 鄭秉夏, 兪吉潛등을 중심으로 하는 親日派의 第四次 金弘集 內閣을 成立시켰다. 그리고 10日에는 廢后詔勅, 11月 15日을 期하여 太陽曆 使用과 年號를 建元, 그리고 斷髮令을 頒布하였다. 이같은 斷髮令의 頒布는 現代化를 위한 일이

<sup>2)</sup>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서울신문사 出版局, 1946. p.16.

<sup>3)</sup> 金榮國, 韓末 義兵의 思想的 考察. 韓國社會科學論叢, 卷10, 1969. pp.20~21.

기는 하나 民情을 무시한 拙速한 處事였고 이를 強制施行 함으로서 일반민중의 憤怒를 불러 일으켰으니 斷髮令 頒布를 契機로 일어난 義兵의 蜂起는 斷髮令을 反對하는 단순한 保守의인 抗學만이 아니라 日本侵略에 대한 反抗이었다.

廢后詔勅이 발표되던날 서울에서는 倡義所告示의 이름으로 日本의 逆天無道함과 원수는 잊지않고 갚겠다는 告示文이 붙었다<sup>4)</sup>. 이러하자 民心이 설레이게 되고 大院君의 이름으로 京鄕各地에 이를 撫摩시키는 告諭文이 傳布되었으며<sup>5)</sup> 8月 30日(陰曆)에는 前參判 李建昌, 洪承憲, 鄭元夏의 聯名으로 討逆疏를 올렸고<sup>6)</sup> 이어 崔益鉉, 尹泰興, 李南珪 등은 上疏하여 廢后의 不當함은 물론 賊을 討伐하고 원수를 갚을 것을 강력히 주장 하였다<sup>7)</sup>. 永興府使 李南珪는 請復王后位號討逆復讎疏를 올려 王后의 복수를 갚고 宗社를 保存하자고 하였다<sup>8)</sup>. 이처럼 당시 倡義討賊의 大義는 成敗死生은 생각지 않고 일어나서 임금의 원수는 당연히 갚아야 하고 나라의 賊은 당연히 죽여야 하며 中華는 野蠻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 大義를 펴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sup>9)</sup>. 그러나 9월이 되도록 抗日舉義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고 10월이 되자 서울과 京畿지방을 중심으로 檄文이 나붙고 知士들 간에 비밀왕래가 빈번하더니 이를 전후하여 文錫鳳이 報恩에서 舉義하여 討賊을 의 친것을 始初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1月初 官軍에 의해 解散되고 말았다<sup>10)</sup>. 그러나 斷髮令이 발표되고 갖가지 改革이 施行되자 保守의인 儒生들을 격분시켰으니

“……吾國儒林 篤於守舊 有頭可斷 髮不可斷之<sup>11)</sup>”

라고 한것이냐

“……自是 舉國鼎沸 義兵四起<sup>12)</sup>”

라고 한 바와 같이 反日鬪爭은 儒生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連結되어 갔다.

斷髮이 施行되자 金炳始는 上疏를 올려 이의 撤回를 주장하였고<sup>13)</sup> 경기도 義兵將 金河洛은 親日派 大臣들이 임금을 危脅하고 임금의 玉體에 까지 손을 대었다고 하여 이를 王后弑逆에 못지 않은 큰 變怪로 보아 痛憤하였으며 이는 婦女子와 庶民層에까지 謙惡와 不信을 받았으니 그 결과는 斷髮令 施行과 함께 각 지방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義兵의 깃발 아래 뭉쳐 討逆討讎를 외치게 되었던 것이다<sup>14)</sup>.

4) 獨立運動史, 卷1, 義兵抗爭史.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0. p.147.

5) 黃玹, 梅泉野錄, 卷2, 高宗 32年 乙未.

6) 黃玹, 梅泉野錄, 卷2, 高宗 32年 乙未.

7) 前揭, 義兵抗爭史, p.147.

8) 李南珪遺著, 晚修拙辭, 卷3.

9) 李正奎, 從義錄. 獨立運動史資料集, 卷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刊, 1970. p.629.

10) 黃玹, 前揭書, 卷2. 高宗 32 乙未 11條.

11) 朴殷植, 韓國痛史, 第2篇, 47章. 地方義兵條.

12) 黃玹, 前揭書, 卷2, 高宗 32 乙未 11月條.

13) 高宗實錄 卷33 建陽元年 1月 6日條

14) 獨立運動史, 卷1, 義兵抗爭史 p.159.

建陽元年 1, 2월에 걸쳐 金河洛, 趙性學, 具然英, 金泰元, 申龍熙등은 楊根, 砥平, 廣州, 安城등지에서 활약하였고 驪州에서는 前司果 沈相禧가 洪州에서는 金福漢, 李偃, 安炳瓚, 李世永, 李根周등이 安東에서는 權玳一, 權世淵이 晉州에서는 盧應奎, 長城에서는 奇宇萬, 이 興陽에서는 李秉塚가 擧義하였고 柳麟錫은 李春永, 安承禹, 洪思九, 金伯善, 徐相說등의 推戴를 받아 堤川에서 그리고 李昭應을 春川에서 義兵을 일으켰다<sup>15)</sup>.

이러한 초기의 義兵活動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 특히 치열하게 전개 되었으니 義兵들은 대부분 起義檄文에서 壬辰倭亂에 義兵의 傳統을 계승하여 倭夷를 무찌르고 조국을 수호하는 것을 대목적으로 세우고 國母弑害를 복수하고 단발령 반대의 실천방법으로 칩락자인 日帝와 親日分子를 제거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기에 이 시기의 抗日義兵은 단순한 복수나 斷髮令에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日帝侵略에 대한 근본적 항거운동이었다. 이리하여 의병들은 日本 居留民과 日本軍을 공격하고 親日分子를 숙청하였다.

以上과 같이 확대된 義兵抗爭은 거의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갔다. 황해도에서는 海州가 중심이 되어 일부 官軍을 포함한 강력한 義兵이 조직 되었다. 평안도에서는 陽德 高原地帶와 寧遠, 順天, 成川, 殷山등의 鑛夫들이 중심이 되어 약 700명의 의병을 조직하였고 함경도에서는 2월초부터 咸興, 定平, 高原, 永興 등지에서 義兵이 일어나 함경도 觀察使代理 睦裕信과 利原郡守 李起泓을 살해하였다. 이어 3월 초에는 강원도 義兵과 연합하여 3월 19일을 기해 元山 日本人 居留地를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擧事의 主力部隊가 隴關龍鎬 麾下의 강원도 의병이 도착하기 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일본 수비대의 반격을 받고 실패하였다<sup>16)</sup>. 뒤늦게 도착한 隴關鎬 部隊는 陽德地方으로 北上하여 그곳에서 活動을 벌였다.

그러나 이 時期에 일어난 義兵中 가장 크게 활약하고 영향력을 미친 것은 강원도 春川에서 일어난 李昭應 麾下의 義兵과 堤川에서 일어난 柳麟錫 麾下部隊였다. 李昭應은 義兵이 이르는 곳 各營, 各邑의 長으로서 만일 便利할 것을 생각하여 呼應하지 않는 者나 賊의 便에 붙어서 軍情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모두 夷賊禽獸의 앞잡이요 亂臣賊子의 徒黨이니 단연 軍法을 施行하여 먼저 베고 후에 報告할 것이라 하였다<sup>17)</sup>. 여기서 그는 특히 日本人에 대해서 倭奴, 즉 왜놈이라는 극단적인 呼稱을 사용하고 倭奴와 거기 아첨하며 따라다니며 國母를 弑害하고 君父의 머리를 강제로 깎은 무리들은 不共戴天의 원수로 규정지우며 그들에 대한 復讐雪恥를 들도없는 큰 義理로 내세워서 義兵의 名分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觀察使兼 宣諭使로 내려온 曹寅承을 斬刑하였으며 淸平川에 살던 參判 趙寅熙가 義兵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弑害당하였다<sup>18)</sup>. 이어 그는 義兵 1,100명을 모아 南漢山

<sup>15)</sup> 獨立運動史, 卷1, 義兵抗爭史, p.159.

<sup>16)</sup> 日館記錄 1896年 本邦人 被害에 關한件 公第 14號.

<sup>17)</sup> 李昭應遺著, 習齋先生文集. 手寫本 卷7.

<sup>18)</sup> 義兵抗爭史, 卷1, 義兵抗爭史, p.166.

城의 義兵과 聯合 서울 진격을 목표로 楊根을 거쳐 3월 17일 廣州에 이르러 安城義兵 수백 명과 합세하여 官軍과 接戰하면서 南漢山城에 入城 서울을 위협했으나 親衛隊長 李謙濟가 이끌고 온 官軍에 의해 解散되고 말았다.

한편 柳麟錫이 이끄는 義兵部隊는 忠州觀察使 金奎弼, 丹陽郡守 權滿, 淸風郡守 徐相耆를 죽이고 公州觀察使 李宗源을 감금하는 등 맹활약을 하였으나 張基濂이 이끄는 官軍에게 敗戰하여 再起를 꾀하게 되었다.

이같은 義兵蜂起에 대해 金弘集 內閣에서는 建陽元年 正月 18일에 內部協辦劉世南을 江原道 宣諭使로 임명 다음과 같은 詔勅을 내려보냈다. 즉,

“聞하니 原州地方 人民이 無賴輩의 傳訛煽動으로 堵를 안치 못하고 群起하여 群邑을 騷擾케 한다 하니 朕이 甘히 慨然한지라 內部協辦 劉世南을 命하여 그 地方에 馳往하여 朝家の 命意를 宣諭하노니 爾民人등은 各其開悟하여 鄉里에 歸하여 業을 安하고 蠢動치 말라<sup>19)</sup>”

고 하고 뒤이어 新任 春川府 觀察使 曹寅承을 宣諭使로, 大邱府 觀察使 李重夏를 嶺南地方 宣諭使로 兼任시켜 命勅을 전달하며 義兵들의 解散을 권고하며 住民들을 生業에 安定하도록 宣諭하였다. 그러나 義兵陣에서는 이들이 갖고간 勅命이 진짜 王命이 아니라 逆臣들이 王命을 憑藉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宣諭를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또 勅命을 갖고 간 宣諭使까지 逆賊의 무리 또는 앞잡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曹寅承은 義兵에 잡혀 處斷되었으며 다른곳의 宣諭使도 자유로이 活動하기 힘들었다.

한편 이같이 親衛隊兵力이 義兵鎮壓을 위하여 지방으로 출동한 틈을 타 親露派의 策動으로 國王의 俄館播遷이 일어나고 金弘集이하 親日內閣이 被殺 또는 追放되자 王은 義兵들에게 다음과 같은 宣諭詔勅을 내렸다<sup>20)</sup>.

첫째, 그동안 수십년간 있었던 국가의 變亂은 國王이 사람을 잘못알고 일을 잘못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니 모두 國王 자신의 過失이었다.

둘째, 8일의 큰 事變은 逆賊, 魁首들이 모두 처벌되었으니 神과 사람이 함께 償해 하던 것이 풀릴만 한즉 그밖의 사람들은 官吏, 軍人들 모두 용서한다.

셋째, 斷髮하는 일은 원래 國王의 本意가 아니었고 妖邪한 賊의 무리들이 強制에서 왔던 것인데 지금부터는 다시 들어 말하지 않겠으며 衣冠制度 같은것도 각자의 便利에 맡긴다.

넷째, 각처에 義兵이 일어나서 官軍과의 전투가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인데 지금부터 지방에 파견하였던 京軍도 곧 소환하니 義兵들은 모두 解散하여 자기 직업에 안정하라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義兵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니 政變이 있을때 마다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詔勅이었기 때문이다. 또 日本의 정치세력이 俄館播遷후 중앙에서는 제거된듯 하나 日本人의 한국침략은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본의 상인, 어민은 농어촌까지 침

<sup>19)</sup> 官報 建陽元年 正月 19日字 號外.

<sup>20)</sup> 黃玟, 梅泉野錄, 卷2, 建陽元年 丙申條.

투하고 日本軍 守備隊는 日本人 居留地와 兵站要地에 駐屯하여 日本의 침략을 中央政治人 보다는 地方의 農民들이 더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러하자 政府에서는 崔益鉉, 李道宰, 申箕善같은 名望있는 人物을 宣諭官員으로 임명하여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崔益鉉, 李道宰는 당초 宣諭員의 임명조차 거부하였으니 그 이유를 崔益鉉은

첫째, 일부의 逆賊이 處斷되었다고는 하나 그중에 趙義淵, 兪吉濬이 四逆으로 指目되었는데 그들의 親族은 모두 서울안에서 그대로 편히 살고 있으니 逆賊의 처형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

둘째, 日本은 이름은 交隣이나 사실은 逆賊들을 돕고 있다. 이제 그 日本人 軍隊가 그대로 나라에 있는데 倭賊討伐을 위해 나선 義兵들을 무슨 먼목으로 무슨 말로 解散하나 宣諭할 것인가.

셋째, 衣冠등은 편리한대로 한다지만 본래 制度 그대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등의 이유로 나가지 않았으며<sup>22)</sup> 洪川地方으로 나갔던 宣諭使 南宮愷은 義兵들에게 쫓겨 돌아오고 南路宣諭使로 나갔던 箕

申善은 忠淸道 鎭川地方에서 義兵에게 抑留되기도 했었다<sup>23)</sup>

한편 政府에서는 宣諭와 함께 地方과 中央의 兵力을 동원하여 義兵을 鎮壓하려 하였다. 이때의 兵力을 살펴보면 乙未改革에 의해 各道의 水營, 兵營등을 모두 폐지하고 警務廳과 侍衛隊를 설치하였으며 귀이여 侍衛隊를 訓練隊에 흡수하였다가 9月 13日(陰曆) 字 勅令에 의하여 國內의 陸軍 兵力을 親衛隊와 鎭衛隊로 나누어 親衛隊는 서울에 鎭衛隊는 지방에 두었다. 各衛의 兵力은 親衛隊는 4개 中隊를 1개 大隊로 編成하여 3개 大隊로 하였으며 鎭衛隊는 平壤과 全州에 각각 1개 大隊씩 編成하였으니 鎭衛隊 1개 大隊兵力은 2개 中隊씩이었다. 그리고 建陽元年 3월에 와서는 親衛隊를 다시 第4, 第5의 2개 大隊를 增設하여 聯隊 兵力으로 編成하였다. 그리고 지방에는 警務廳 主管下에 巡檢을 각 觀察府에 배치하여 治安關係를 담당하게 하였다<sup>24)</sup>. 乙未 6月 6일에 內部大臣 朴定陽의 奉勅義定으로 定해진 巡檢 총수는 1,500명 이었다<sup>25)</sup>.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日本 守備隊 兵力이 동원되어 義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乙未義兵은

첫째, 壬辰倭亂때 義兵의 傳統을 이어받았으니 그들의 檄文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倭夷를 驅逐하여 조국을 수호하는 것을 大目的으로 세우고 國母弑害를 雲辱하고 斷髮을 反對하는 實踐方法으로 침략자인 日人과 親日黨을 제거하려 하였다. 당시의 義兵抗爭을 日人들은 “今番 當國各地의 暴起의 匪徒는 主로 我에 대해서 敵意를 품고 我人民에 대하여 殘虐을 恣行하고 他外國人에 대해서는 조금도 暴行을 加하지 않는 것은 대개 그 原

21) 韓國獨立運動史, 卷1. 國史編纂委員會, p.18.

22) 勉菴集, 卷4, 宣諭大員命下後陣懷待罪疏.

23) 續陰請史, 卷8, 建陽元年 2月 22日.

24) 文獻備考, 卷100, 兵考 2 同 238卷 職官考 25, 更張官制.

25) 獨立運動史, 卷1, 義兵抗爭史, p.191.

인이 없는 바는 아니다<sup>26)</sup>”라고 自認하고 있다. 1896年 初부터 5월까지 전국의 日人 死傷者 수는 被殺者 43名, 負傷被虐待者 19명 이었는데<sup>27)</sup> 이들은 주로 지방의병에 의해 타살되었거나 군중에게 물매를 맞아 死傷된 것이다.

둘째, 이들은 日軍만 상대로 싸운것이 아니라 官軍과 맞서야 하는 二重의 피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日本과 合流하여 開化政策을 강요하는 官吏들을 사살하였으니 1895年 겨울에서 이듬해 正月까지 官報에 오른 高官 被害者만 많은 수에 이르렀다. 즉, 觀察使가 6명, 郡守가 10명, 府尹이 1명, 警務官이 3명, 主事 2명, 摠巡 2명, 參書官이 2명, 그리고 稅務視察이 1명으로 나타나 있다<sup>28)</sup>. 그러나이 외에도 누락된 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義兵活動에도 限界가 있었다.

셋째, 모두 독자적 個別的으로 일어났을 뿐 組織的인 計劃과 서로 連結하여 一體的인 行動을 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武器의 部足과 組織 및 訓練의 缺如를 들 수 있다.

셋째, 지도층인 儒生간의 軋轢과 老儒와 少儒간의 思想的인 差異에서 오는 행동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네째, 儒生 義兵將과 농민들과의 계급적인 차이에서 오는 矛盾을 잘 調和하지 못했다.

以上の 理由外에도 1896年 長城에서 奇宇萬이 起兵한 것을 보면

“……時湖南人 以他道皆有義兵 而恥獨無之 愆憑宇萬 使之建旗 然門族恣橫 鄉里苦之 其徒會者 皆深衣 大冠 揖讓序進 無糧機無紀律 觀者卜其必憤 進屯光州<sup>29)</sup>”

라고 한 것처럼 兩班의 特權意識에 의한 그들 門徒들의 橫恣로 鄉里에서 많은 苦痛을 받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協力을 제한하였으며 이들은 戰鬥時에도 深衣, 大冠을 하고 揖讓序進을 지켰다는 것은 無糧機, 無紀律과 아울러 戰鬥에서의 儒生의 脆弱性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단 全羅道뿐만 아니라 文錫鳳이 報恩에서 舉義할 때 儒生들이 모두 巾과 袍를 입고 참가하였다고 함을 볼 때 전국적인 現象이었을 것이다<sup>30)</sup>. 이러한 儒生 義兵將들은 그들의 身分의 限界性으로 말미암아 反帝鬪爭에다 反封建鬪爭으로 連結할 수 없었으니 이런 性格이 強化되는 것은 乙巳條約 以後 平民 義兵將들이 차차 등장하여 투쟁이 보다 大衆的 基盤을 차지하고 頑強性을 띄우므로 可能하였다<sup>31)</sup>.

### III. 第二期 (1905 ~ 1907)

乙未事變以後 치열하였던 義兵抗爭이 한때 小康狀態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乙巳

<sup>26)</sup> 日館記錄 1896年 本邦人 被害에 關한 書類 機密第41號, 我人民 被害에 關한件.

<sup>27)</sup> 日館記錄 1896年 本邦人 被害에 關한 書類 機密第41號, 我人民 被害에 關한件.

<sup>28)</sup> 黃玟, 梅泉野錄, 卷2, 建陽元年 丙申 正月條.

<sup>29)</sup> 黃玟, 梅泉野錄, 卷2, 建陽元年 丙申 正月條.

<sup>30)</sup> 黃玟, 前揭書, 建陽元年 乙未 10月條.

<sup>31)</sup> 金義煥, 日帝의 朝鮮侵略과 初期 義兵鬪爭巧, 東國史學, 9, 10合輯, 1966. p.92.

條約이라는 또하나의 굴욕과 悲運을 強要받았다. 1905年 露日戰爭의 결과 美國 大統領 루즈벨트(Theodore. Roo Sevelt)의 中裁로 포오즈머즈 講和條約을 締結한 뒤 日本의 韓國에서의 權益과 美國의 比律賓에서의 權益을 承認한 뒤 日本은 特命全權大使 伊藤博文을 乙巳年 11月 19日에 朝鮮에 派遣하여 各大臣을 危脅하여 5個條의 乙巳條約을 締結하였다. 이로써 日本은 韓國의 外交權을 강탈하고 內政까지도 간섭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韓國의 主權은 假死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이같은 悲報에 鐘路商人들은 撤市하고 各學校는 閉門, 皇城新聞에 張志淵은 「是日也 放聲大哭」을 발표하여 主權侵害의 痛憤을 눈물로 국민앞에 호소했다. 閔泳煥, 趙秉世, 洪萬植, 李相哲, 金奉學, 李漢應, 宋秉璿, 李命宰등은 죽음으로 抗爭하였으며 前承旨, 李爽鐘, 李建爽등은 上疏 抗爭다가 投獄되어 斷食 自殺 하는등 高官으로부터 한낱 이름없는 車夫와 婢妾들도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었다. 親日 賣國奴의 뒤에는 義로운 刺客이 따랐고 그들의 저택은 불태워 졌다. 이러한 민족의 抗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到處에서 抗日義兵이 蜂起하여 日帝의 경찰과 軍隊와 죽음의 항쟁을 전개 하였다.

乙未義兵以後 各地에서 이른바 活貧黨을 비롯한 反日抗爭은 계속되어 그들은 內陸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日本 行商輩와 居商輩들을 배격하였고 그들은 加熱해지는 日本侵略을 警告 糾彈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1904년까지 국내 新聞지상에 실리지 않은 날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그들의 기세는 強化되고 擴大되었다. 1904년 1월 露日戰爭이 일어나기 직전 日本의 한 신문은 朝鮮 各地의 活貧黨 蜂起라 하여 그 實況을 보도한것도 있다<sup>32)</sup>. 그리고 1905年 9月 露日休戰이 성립되자 도처에서 義兵이 일어나 韓國민의 강력한 抗日 武裝鬪爭이 시작되었다. 그 概況을 每日新報는

“近日 소위 義兵이라 稱하는 자가 忠北에서 倡蹶하여 山棚獵戶를 招募하며 輕儒寒士를 會同하며 浮浪失業者, 破落戶를 集合하여 或 4~50名이 蝗飛蝻集하여 其名을 義라 하되 其目的은 鄉村에 突入하여 錢穀을 討索하여 閭里에 橫行하며 銃劔을 수색한다 하니 外樣觀之컨데 不安黨과 酷肖한 一塔影이라 此是 國家의 一亂萌이요 生民의 一禍孽이라 하겠도다<sup>33)</sup>”

라고 하고 있다.

忠北 永春과 江原道 寧越 一帶에서 起義한 元容八은 檄文을 뿌려 義兵을 모집하였으며 3, 40내지 4백명에 이르는 義兵들은 各小邑의 郵便所를 공격 하였다. 安東郵遞所長의 報告에 의하면 丹陽방면의 義兵 2백이 16日에는 順興邑, 이튿날 3백이 榮州邑을 각각 습격하여 郵便所를 파괴하고 主事 書記를 처단하였으며 豐基, 奉化, 禮安에도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sup>34)</sup>. 또 忠州, 平昌, 安東방면의 義兵蜂起에 당황한 日本은 原州鎭衛隊를 시켜

<sup>32)</sup> 明治編年史. 明治 37年 1月 24日.

<sup>33)</sup> 每日新報 1905年 9月 10日字.

<sup>34)</sup>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1. p.145.



鎮壓케 하였으나事態는 容易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日本側 機密報告는 江原道 義兵蜂起에 관하여 本件鎮壓에 관해서는 我軍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容易하게 그 目的을 달할 수 없다고 實吐하고 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강원, 충북, 경북 각도의 義兵勢力은 각기 천명에 육박하는 大部隊로 強化되어 一帶는 완전히 義兵天下로 바뀌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日本은 韓國에 대해서 日本軍의 投入을 일방적으로 通告하였다<sup>35)</sup>.

1906년에는 더욱 많은 義兵이 蜂起하였다. 南原의 梁漢奎, 順天의 白樂九, 金海의 金顯奎, 英陽의 金淳鉉, 安東의 李夏玄, 報恩의 盧炳大등 諸將은 1905年末 또는 1906年初에 起義한 사람이며<sup>36)</sup> 가장 큰 起義는 1906年 3月の 洪州의 閔宗植과 同年 6月の 崔益鉉이었다.

1906年 3月 상순 閔宗植, 李世永, 蔡光默, 安炳讚, 朴昌魯, 李根周 등이 擧義, 討賊하기로 決意하고 定山의 天庄里를 근거지로 하여 檄文 및 各國公使에게 보내는 請願文의 작성과 軍用品의 奪取 등지 勾합에 나섰다. 閔宗植은 閔氏一族中の 領首級 인사로 수년전부터 忠南 定山郡 庄里에 은퇴하여 있었다. 이 擧義 情報를 탐지한 日帝 憲兵이 鎮壓하며함에 機先을 制하여 13日 밤중에 등지 3, 40명을 이끌고 靑陽을 거쳐 洪州로 進入코자 하였으나 同地에 다수의 憲兵이 駐屯하고 있었으므로 保寧으로 진격하던중 17日 未明에 日本 憲兵의 습격을 받아 抗戰하였으나 敗戰하였다. 閔宗植은 靑羅로 피하여 많은 동지를 勾합하고 前職 관리들을 다시 加盟시켜 軍勢가 擴張되자 5월 14日 藍浦에서 다시 擧義하여 藍浦郡守 및 保寧郡守에게 兵馬와 軍資金의 제공을 명하고 日人을 포박하여 懲治하였다. 이때 保寧郡守 申奭求는 義兵에게 砲丁을 보내고 洋銃 80정을 보냈던바 忠南 觀察使 金嘉鎭의 보고에 의하여 負官처분을 받았다<sup>37)</sup>. 19日 오후 5시 洪州城을 공격하였으나 義兵의 무기는 銃器가 6백정, 槍戰이 2백여명, 赤手空拳이 3백등 총병력의 1천1백의 대부대였다. 倡義軍 隊長에 閔宗植, 참모장은 처음에는 鄭在鎬, 黃英秀 나중에는 李世永, 先鋒將에 朴斗永, 後鋒將에 鄭海熹, 遊擊將에 蔡敬熬, 召募將에 崔相集, 餉官에 朴潤植, 運糧官에 朴齊賢, 成戴平이며 參謀에 李拭, 郭漢一, 柳濬根, 蔡光默, 金光植, 李容珪, 李相龜, 軍師에 金商惠이 배치되어 火砲 6門을 앞세우고 공격하여 마침내 城을 점령하였다. 그런뒤 수비에 만전을 기하자 統監 伊藤은 韓國駐劄司官 長谷川에게 出兵을 명령하니 長谷川은 田中少佐를 지휘관으로 삼아 2개 보병중대와 騎兵 반개소대로 部隊를 편성하고 기관총으로 장비시켜 洪州城 공격을 시켰다. 전투는 5월 30日 오전 11시에 시작되어 만 2일간의 血戰이 계속되었으나 장비와 훈련부족으로 敗戰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의병은 일본군 10여명을 죽이고 4명을 생포하여 총살 했으나 의병측도 軍師 金商惠의 戰死를 합하여 83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생포되었다. 이중 79명은 서울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중 尹錫鳳, 李相斗, 李戴均, 李喜龍, 李拭, 申鉉斗, 柳濬根, 南敬天등은<sup>38)</sup> 斷食으로 항쟁하였고 閔宗植은

<sup>35)</sup> 1905年 外部往記錄 10月 25日字 萩原代理公使의 朴外務部大臣 앞으로 보낸 公文, 第145號.

<sup>36)</sup> 前揭, 韓國獨立運動史, 卷1. p.147.

<sup>37)</sup> 前揭, 韓國獨立運動史, 卷1. p.147.

<sup>38)</sup> 前揭, 韓國獨立運動史, 卷1. p.150.

피신하여 再起를 도모하다. 11월 20일에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珍島에 流配되었다. 또 參將 柳潛根은 洪州城 陷落때 혼자 남아 毅然히 抗戰다가 체포되었으며 朴樸來는 安東人으로서 醫術을 팔며 여러곳을 周流다가 龍川 金德元의 집에 留하다가 洪州義擧를 듣고 進士 洪在綺와 江界에서 義兵을 糾合中 잡혀 獄苦를 겪었다. 崔益鉉은 1906년 5월에 舉義討賊키로 하고 同志糾合에 나섰다. 그리하여 高石鎭이 林炳贊을 추대하여 崔濟學을 시켜 함께 舉義키로 하였다. 이때 湖南儒生 安炳贊이 來書하기를 湖南地方의 搢紳들이 先生을 추대하여 盟主로 삼겠다 하자 이를 승락하고, 郭漢一, 南奎振에게 尊攘討復이란 旗幟를 주어 湖西에게 활락하게 하는 한편 李戴允에게 명하여 淸國에 응원을 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林炳贊에게 招募, 軍糧, 鍊兵을 맡기고 6월 4일 泰仁의 武城書院에서 많은 門徒를 집합시켜 義擧를 公布한뒤 國王에게 上疏를 올려 決意를 表하였으며 芻蕘를 호소하는 檄文을 각 처에 돌렸다. 이때 高龍鎭이 砲士 姜鍾會등 30여명을 이끌고 참가하여 軍勢가 大振하고 井邑, 淳昌, 谷城등지를 순회하는 동안 450의 의병이 糾合되어 林炳贊, 金箕述, 柳鍾奎, 金在龜, 姜鍾會, 李東柱, 李容吉, 孫鍾弓, 鄭時海, 林相淳, 林炳仁, 宋允性, 林炳大, 李道淳 崔鍾達, 牟仁求등이 여러 부서를 分擔하고, 한편으로는 日帝의 棄信, 背義한 16개 罪目을 列擧한 書翰을 韓國駐在 日本公館에 送致하여 日本의 罪狀을 폭로하고 이를 痛駁하였다<sup>39)</sup>. 義兵들은 淳昌, 泰仁, 谷城등지를 근거로 郡衙를 습격하여 세금을 탈취하여 軍資金으로 充用하고 무기를 빼앗는 등 활약을 벌이자 일본은 全州支部의 日本경찰을 동원시켰으나 역시 패전하였다. 또 10일 義兵은 淳昌을 습격 淳昌郡守 李建鎔을 설득 가담시켰다. 그러나 11일 鎭壓次 출동한 全州鎭衛隊에 先攻을 당하여 鄭時海가 전사하고 13일에는 崔益鉉을 비롯하여 林炳贊, 高石鎭, 金箕休, 文達煥, 林顯周, 柳鍾奎, 趙愚植, 趙泳善, 崔濟學, 羅基德, 李容吉, 柳海溶, 梁在海 등이 체포되어<sup>40)</sup> 崔益鉉은 對馬島에 流配되어 斷食抗爭다가 12월 30일에 殉國했으며, 林炳贊은 2年 崔濟學, 高石鎭은 尙금 4개월의 형을 받았다.

淳昌義兵의 敗報를 들은 前平海郡守 姜在天은 痛憤을 이기지 못하여 任實郡 下雲面의 雲岩江邊에서 告天祭를 올리고 舉義하여 同年 9월 4일 義兵을 이끌고 南原에서 求禮에서 3백의 義兵으로 鎭衛隊를 격파하고 同福에서 日兵 20여명을 사살하고 潭陽으로 진격하다가 淳昌 藥水亭에서 伏兵戰으로 日兵 30여명을 사살하고 白羊寺에 留陣中 11월 21일 長城郡을 夜襲하여 大勝하자 軍勢는 大振하였으나 前夜에 先鋒 李尙允이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자 그는 이를 탄식하고 義兵을 해산한 뒤 산속에 숨었다<sup>41)</sup>.

한편 三南都視察使 鄭煥直은 高宗의 密旨를 받고 경상도에서 義擧를 決行, 아들 鏞基와 李韓久에게 江陵으로 北上케하고 자신은 中央에서 北上하여 일제의 감시속에 있는 國王을 피난시키고 일본세력을 驅逐할려는 작전을 세웠다. 鄭鏞基는 李韓久와 협력하여 嶺南 각지

39)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1. p.152.

40)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1. p.152.

41)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1. p.152.

에 檄文을 보내 6백여명의 의병을 糾合 1906년 봄 山南義陣의 旗幟를 들고 東大山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慶州 鎭衛隊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황제의 特命으로 석방되었다.

申堧石은 1906년 平海에서 義擧하여 많은 成果를 올렸고 黃海道 文化에서는 禹東鮮이 征東義旅大將의 旗幟아래 일어나 趙允奉, 李振台 등과 關西지방을 席捲하였고 李鎭龍은 平山에서, 朴正彬, 趙孟善, 由俊彬 등은 禮成江邊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벌렸다. 또 寧德에서는 申奎浩, 興海에서 崔聖執도 큰 활약을 하였다.

1907年 2月 13日 南原의 朴在洪은 70여명의 義兵을 이끌고 南原鎭衛隊를 습격하여 接應하고 郵便取扱所를 공격하여 총기 1백80정과 탄약 1천발, 公金 1천원을 탈취 또 추격하는 日軍 佐土原補佐官補를 부상시켰다<sup>42)</sup>.

4월 22일에는 儒生 李光先이 綾州의 梁會一과 함께 1백여의 義兵으로 綾州郡邑을 습격 총 5정을 뺏고 다시 和順을 공격하여 郡衙와 分派所를 공격한뒤 同福으로 퇴각했으나 日軍에게 추격을 받아 梁會一以下 6명이 체포되었다<sup>43)</sup>.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5년 9월에 비롯된 義兵抗爭은 1906년과 1907년에 이르러 치열하였고 1907년 군대해산을 계기로 본격적인 투쟁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 IV. 第三期 (1907 ~ 1909)

##### 1) 全國 義兵概況

乙巳條約이 체결되고 이를 반대하는 決死的인 항쟁이 전국적으로 과급되고 있는 동안에도 日帝는 韓國의 併呑을 위한 整地作業을 진행하고 있었다. 海牙密使事件을 계기로 高宗을 강제로 退位시키고 1907年 7월 24일 7條로 된 丁未條約을 강제로 締結하였다. 이 조약의 목적은 일본이 韓國의 兵權, 裁判權, 徵稅權을 뺏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7월 30일 軍隊解散에 관한 詔勅이 내리고 8월 1日 서울의 侍衛隊 解散을 시작으로 지방의 鎭衛隊의 解散도 계속되었으니 3일에 開城과 淸州, 4일에 大邱, 5일에 安城, 6일에 公州, 海州, 平壤 7일에 安州 8일에 水原 9일에 光州, 義州 10일에 洪州와 原州 11일에 江華와 聞慶 13일에 江陵과 藍浦 14일에 全州 16일에 安東 17일에 蔚山과 東津 19일에 慶州 23일에 江界 24일에 咸興등 약 한달간에 걸쳐 軍대해산을 끝냈다<sup>44)</sup>. 그러나 軍대해산에 반대하는 서울 侍衛隊 朴昇煥 參領의 자살로 야기된 抗戰은 하루만에 끝나고 말았지만 지방의 鎭衛隊에도 영향을 끼쳐 이들의 抗戰은 全國의 義兵의 蜂起를 誘發하게 하였으니 이들 解散된 軍人들은 新式訓練도 받았고 더구나 新式武器도 다수 갖추게 되었고 이들은 年來의 經驗도 있고 해

<sup>42)</sup> 李一龍譯, 秘錄 韓末 全南義兵戰鬪史. 全南日報出版局, 1977. pp.22~23.

<sup>43)</sup> 李一龍譯, 秘錄 韓末 全南義兵戰鬪史. 全南日報出版局, 1977. pp.22~23.

<sup>44)</sup> 朴成壽, 抗日的 義兵. 韓國現代史, 卷3 新丘文化社, 1972. p.169.

서 戰術도 자못 奇妙해져 精銳를 자랑하는 日軍도 상당한 苦杯를 면할 수 없었다.

1907年 8월부터 전국을 휩쓸기 시작한 義兵抗爭은 일찌기 보지못했던 領域과 규모로 확대되었다. 1908년에는 그 절정에 달하여 南쪽에서 濟州道로 부터 북쪽은 間島, 露領, 沿海州까지 義兵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전선없는 전쟁이 한반도를 휩쓸었다. 이는 1909년을 거쳐 1910년까지 계속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彼我的 人命被害나 物資의 損失은 莫大한 것이었다. 수십만의 의병이 敵兵과 對戰하였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義兵을 지원하여 日本軍에 莫大한 타격을 입혔다. 日本은 해마다 莫大한 戰費를 투입하였고 守備隊과 견비만도 연간 3백 수십만원을 썼던 것이다. 직접 義兵戰爭에 소모된 戰費를 합한다면 적지않은 액수가 될 것이다.

8월초 忠北, 慶北, 京畿의 여러 곳에서는 義兵이 일어나 市邑을 점령하였다. 8월 3일 淸風과 聞慶에 義兵이 쳐들어가 警務分派所와 우편취급소 그리고 親日派 郡守, 郡書記의 가옥을 파괴하였다. 4일에는 楊根邑과 砥平邑에서 義兵이 점령하였다. 이들은 曹仁煥, 權仁京등이 중심이 된 농민들이었고 13일에는 聞慶에도 義兵이 나타나 郵便所 廳舍가 파괴되고 金庫와 기타 物件과 用紙를 破却하고 遞送人 島田一磨를 사살하였다. 또 親日派의 가옥 13동을 파괴하였다<sup>45)</sup>. 原州鎮衛隊 兵士가 蜂起한 것은 8월 5일의 일이었다. 그들은 협사리 原州住民과 합세하여 警察分署를 습격하였다. 鎮衛隊 병사의 봉기는 주민과 농민들의 봉기에 큰 감명과 용기를 주었다. 忠州守備隊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原州邑을 장악한 兵士들은 特務正校 閔肯鎬가 지휘하는 一派와 大隊長 署理 金德濟가 지휘하는 다른 一派로 나누어 提川, 忠州, 竹山, 長湖院, 驪州, 洪川으로 閔肯鎬는 진출하고 平昌, 江陵, 襄陽, 杆城, 高城, 通川, 翁谷은 金德濟가 진출하여 강원도 一帶는 義兵天下가 되었다<sup>46)</sup>. 두 部隊가 진출한 각지방에는 李京三, 金萬軍, 高石伊, 金君必, 李韓昌, 韓基錫, 韓甲俊, 尹起榮, 李康年, 金生山, 邊鶴基, 曹仁煥등 諸將이 割據하고 있었다<sup>47)</sup>.

8월 7일 忠州邑을 공격한 義兵들은 中原分派所를 공격하여 日人 警務補助員 2명을 포락 처단하고 무기와 탄약을 노획 하였다. 또 8월 10일 驪州義兵은 漢江을 航行하는 日本 木船을 安倉江邊에서 捕捉 기습하여 日人 20여명을 사살하고 積戴貨物을 노획하고 12일에는 驪州邑을 포위하여 日警 2명을 사살하고 同邑을 점령하였다<sup>48)</sup>.

이렇게 시작된 義兵戰爭은 8월말 9월초부터 嶺南과 湖南一帶로 확대되어 갔다. 특히 李麟榮, 柳麟錫, 許薦, 李康年등 義兵將은 유명한 義兵將이고 申丕石 李石伊등 평민 義兵將도 뛰어난 戰歷의 소유자였으며 鄭煥直父子, 邊鶴基, 崔成執, 朴淵伯등 慶北地方의 義兵將과 全北의 文泰瑞, 金東臣, 李錫庸, 全南에 高光詢, 奇參衍등 뛰어난 義兵將이 있었다. 또 戰爭은 황해도를 거쳐 평안남도의 함경남도로 북상하여 황해도에서는 朴正彬, 辛景七, 洪君石, 金日燮, 姜春三, 평남에서는 朴義夷, 尹鉏 등이 함남에서는 車道善 兄弟와 洪範圍가

<sup>45)</sup> 記錄, 聞慶郵便所長報告. 1907年 8月 3日.

<sup>46)</sup> 大韓新聞 1907年 8月 13日字.

<sup>47)</sup> 大韓新聞 1907年 8月 13日字.

뛰어났었다<sup>48)</sup> 또 鴨綠江 對岸의 間島와 豆滿江 下流 對岸의 露嶺, 沿海州에도 義兵이 일어나 國境을 넘어 국내진공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露嶺에는 李範允, 嚴仁燮이 수천 명의 義兵을 모아 대대적인 豆滿江 渡河作戰을 준비하였다.

以上에서 온 바와 같이 軍隊解散에 緣由한 義兵抗爭은 일찌기 보지못한 규모로 전국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구성도 다양하였다. 乙未事變 후의 1차 蜂起나 乙巳條約 후의 2차 蜂起는 모두 分散의이어서 共同戰線이 적었고 무기는 없는데다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烏合之卒이어서 일본군의 銳利한 武器앞에는 너무나 無氣力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抗爭은 新式訓練을 받은 軍人들이 單身으로 또는 集團으로 義兵에 合流하여 어느 정도의 장비와 훈련이 갖추어졌고 또한 지난날의 경험으로 다소의 戰術도 터득했기 때문에 義兵으로서의 強점이 있었다. 그리고 앞서의 義兵이 대개 儒林에 의해서 倡義된 데 대해 이번의 擧事는 다분히 平民계급에 의한 꺾기로서 광범한 농민층이 의병항쟁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밑으로는 풀샅에 대부분의 생계를 의지하는 農業勞動者의 行商 手手乙業者들에서 부터 건전한 自小作 農民, 가난한 儒生, 兩班에 이르기 까지 義兵隊列에 나섰기 때문이다. 韓國軍 兵士도 대부분 농민출신 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장하고 組織的인 隊伍를 형성해 나갔다. 이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민중의 抗擧가 擧族의으로 成長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住年의 義兵指導者들을 推戴하여 대규모적인 武裝鬪爭을 企圖하였다. 이리하여 義兵의 지도층에는 地方 儒生 兩班을 위시하여 中央官僚의 沒落層까지 끼어들어 강한 保守色을 띄우기 까지 하였다. 그러나 儒生, 兩班 義兵將의 指導力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었고 강력한 일본군의 討伐作戰앞에 大兵力을 유지할 수 없었다. 1908년 봄이후 保守的인 儒生系 義兵將들은 하나 둘 살아져 갔다. 일부 義兵들도 歸順票를 받아 가족과 鄉土를 찾아 돌아갔다. 그러나 남은 先鋒이나 中軍, 後軍을 맡아보던 部將들이 또다시 戰列을 整備하여 우수한 守備隊와 憲兵警察隊에 대해 새로운 編制와 作戰이 模索되었다. 그들은 部隊를 小規模의 兵力으로 效果的인 狙擊 狙擊 기습작전 親日徒輩와 機會主義的 地主에 대한 膺懲을 더욱 強化해 나갔다. 이와 같이 亡國의 최후를 全國 義兵의 力量을 총 集結한 13道 倡義軍의 서울 공격을 頂點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13道倡義軍의 結成은 關東義兵將 李殷瓚, 李戴九가 1907년 7월 25일 聞慶으로 李麟榮을 찾아갔다. 李麟榮은 驪州出身으로 앞서 斷髮令에 反對하여 柳麟錫과 함께 義擧했던 抗日 鬪士이며 儒林의 巨頭였다. 그리하여 앞서 두사람은 李麟榮에게 最近의 國內情勢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이 꺾기하여 나라를 지킬 때임을 강조하고 日本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全體義兵이 단합하여 서울을 奪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맡을 것을 수락하자 關東倡義大將이 된 李麟榮은 전국에 檄文을 보내어 모든 국민은 義兵의 旗幟아래 모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統監 伊藤에게 글을 보내어 日本은 당초 세계에 公約한 대로 韓國의 獨立과 皇室의 安全을 期할 것을 要求한 후 各國 領使館에

<sup>48)</sup> 大韓新聞 1907年 8月 13日字.

는 오늘의 義兵은 國權을 恢復하기 위해서 血國하는 團體이니이 衷情을 이해하고 國際公法에 의거해서 交戰團體를 承認하고 正義의 聲援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sup>50)</sup>.

이러한 李麟榮의 擧事가 알려지자 전국에서 義兵들은 그의 麾下로 몰려들어 部隊가 砥平에 이르렀을 때에 군사는 8천이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守備隊를 동원하여 鎭壓코자 했으나 무려 30여회에 걸친 일본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楊州에 집결한 것은 11월이었고 군사는 무려 1만에 이르렀다. 그중에는 小銃으로 무장한 3천명의 舊韓國軍이 가담하여 더욱 사기를 드높였다. 여기다 전국에서 名望있는 義兵將들은 총집결하였으니 전라도의 文泰洙, 충청도의 李康年, 강원도의 閔肯鎬, 경상도의 申覓石, 평안도의 方仁寬, 함경도의 鄭鳳俊, 경기도의 許薦, 황해도의 權重熙, 朴正彬 등이었다. 이들은 李麟榮을 13道倡義大將으로 推戴하고 軍師長에 許薦, 關東倡義隊將 閔肯鎬, 湖西倡義隊將 李康年, 嶺南倡義隊將 朴正彬, 京畿 黃海倡義隊將 權重熙, 關西 倡義隊將 方仁寬, 關北倡義隊將 鄭鳳俊으로 部署를 정하였다<sup>51)</sup>. 그리고 全軍을 24陣으로 나누어 서울을 향하여 일제히 진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許薦은 먼저 敢死兵 3백을 이끌고 東大門 밖 某處에 집결하기로 했는데 日本은 이를 알고 機先을 制하여 공격해 왔다. 許薦의 義兵은 38회의 전투를 치르면서 東大門밖 30리 지점까지 이르렀으나 後續部隊와의 연결이 끊기고 더구나 李麟榮이 父親喪을 당하여 모든 全權을 許薦에게 맡기고 歸鄉하였다. 그리하여 士氣가 떨어진 義兵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는 이러한 대규모 작전을 계획하지 못하고 소규모 部隊로 遊擊戰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義兵活動이 끝난것이 아니라 全國적으로 擴大 되었으니 日本軍의 討伐作戰도 本格化하여 日本軍과 義兵의 戰國회수는 늘어만 갔다. 日本 內務大臣의 한 秘書官이 報告한 바에 의하면 1907년 10월부터 1908년 4월까지 1,659회의 大小戰鬪가 벌어졌다 한다<sup>52)</sup>. 1907년 10월에 117회, 11월에 265회, 12월에 276회, 1908년 1월에 262회, 2월에 211회, 3월에 288회, 4월에 240회였다. 또 1908년 가을까지 戰爭은 강원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강원도 義兵속에 2.9式 小銃을 가진 韓國軍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日本軍은 먼저 강원도 義兵에 대한 집중공격을 시도했다. 日本警察이 集計한 1908년 全國 道別 戰鬪回數와 義兵數를 보면 江原道와 全羅南道가 가장 많고 전북, 황해, 충남, 경북이 그 다음으로 많다<sup>53)</sup>.

49) 朴性壽, 前掲書. p.175.

50) 記錄 憲兵隊 機密報告 李麟榮取調書.

51) 趙芝薰, 韓國民族運動史. 韓國文化史大系, 卷1.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4. pp.615~16.

52) 日本外交文書, 41卷 1冊. 韓國政情視察復命件.

53) 暴徒編冊 暴徒ニ關スル 諸統計表.

全國 道別 義兵 戰鬪回數와 戰鬪義兵數

1908			1909		
道別	戰鬪回數	戰鬪義兵數	道別	戰鬪回數	戰鬪義兵數
강원	273回	18,599名	전남	547回	17,579名
전남	274	10,544	전북	273	5,576
전북	219	9,906	경북	161	3,667
황해	232	7,998	경기	165	3,453
충남	217	7,666	강원	124	2,468
충북	113	6,815	황해	111	2,148
경북	158	5,702	충남	138	1,003
함남	99	6,438	충북	66	832
경남	153	3,328	경남	61	934
평북	41	2,590	평남	61	540
평남	108	1,391	함남	14	270
경기	78	1,453	평북	17	123
함북	11	283	함북	—	—

위의 숫자는 일본 경찰이 낸 統計이므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나 憲兵守備隊가 제각기 統計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른 것은 각각 다른 명령체통 하에서 義兵을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경찰 集計는 현병이나 守備隊의 戰鬪回數는 들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戰鬪回數와 義兵數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義兵의 전국적인 蜂起로 交通은 杜絶되고 農産物의 對日輸出은 激減되었으며 日本人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쫓겨가고 그들의 土地賣占은 위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末端機關의 行政機能은 마비되고 稅金徵收도 불가능해져 日帝의 對韓政策은 큰 차질을 가져왔다.

## 2) 湖南義兵의 活動

1908년 여름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싸움에서 많은 義兵들이 戰死하거나 체포되었다. 그 결과 큰 變化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여태껏 전국에서 가장 義兵이 強大하고 전투가 치열했던 강원도, 충북, 경북일대의 義兵戰爭이 급격히 가라앉게 되었다. 그래서 1908년 가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의 義兵戰爭은 전남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본경찰이 조사한 1909년 2월부터 6월사이의 전국 道別 義兵의 戰鬪回數와 戰鬪義兵數가 전라북도의 戰鬪回數가 전체의 47.3%, 戰鬪義兵數는 60.1%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1909년 여름 소위 南韓大討伐作戰 實施에 앞서 臨時 韓國派遣隊 司令部는 경남북도, 충청남북도, 그리고 전라남북도의 의병활동 狀況을 다음과 같이 報告하고 있다<sup>54)</sup>.

“경상북도는 강원도 경계부근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靜穩하다.

경상남도는 전라남북도에 隣接한 河東, 花開, 山淸부근을 제외하면 대체로 平穩하다.

<sup>54)</sup> 南韓暴徒大討伐實施報告. 日本公使館記錄 1909年 南韓暴徒大討伐.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 1, pp.805~6.

충청남북도는 때때로 소수의 暴徒가 出沒하고 있다.

전라남북도는 他道에 비하여 情勢 摶絶하고 首魁 割據한다. 그 세력이 強大한것은 수백 명의 部下를 소유하고 항상 여러곳을 橫行하며 심한 경우는 白晝에 集團으로 良民을 納擧하며 강제로 그 徒類에 따르게 하고 혹은 無辜를 잔살하며 혹은 富者를 威喝하고 錢穀을 強請하는등 獸行이 이르지 않은데가 없다. 또 그곳에 사는 일본인을 急襲하고 심지어는 守備 勤務兵 혹은 護威兵을 邀擊하여 兵器 혹은 貨物을 剽奪하는 등 그 勢威가 폭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道에 있어서의 暴徒中 巨魁 沈南一, 姜武景, 安桂洪, 林昌模 등의 일당에 이르러서는 약간 그 趣를 달리하여 엄히 부하의 비행을 단속하고 약탈을 금하며 오로지 한민을 선동하여 폭도의 영속 도당의 強化에 힘쓰는 듯 하다. 이리하여 그 목적하는 바는 폭동의 永續化로 일본의 대한정책을 실패케 하고 統監政治의 非를 폭로하여 마침내는 列國이 이를 인정하여 한국의 독립을 安固케 할 수 있다는 妄想을 품고있다. 그러므로 그 박멸을 기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대타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는 頑民의 원조로 아직도 餘勢를 유지하고 항상 騷擾가 不絶한 狀態이다.”

그럼 전남북도가 이처럼 다른 지방보다 오래동안 義兵戰爭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湖南이 우리나라 最大의 곡창지대이면서 농민들이 오랜 官僚의 착취에 시달려 反抗意識이 강했다는 사실과 開港後 日帝의 經濟侵略을 받아 더욱 어려운 생활로 허덕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sup>55)</sup>

이리하여 1908년 여름부터 전라남북도에 쟁쟁한 의병장들이 나타나 일찌기 보지 못한 강력한 항쟁을 시도 하였다. 任實의 李錫庸, 茂州의 文泰瑞, 高敞의 李大局, 淳昌의 全海山 曹京煥, 求禮의 奇三度, 光州의 梁振汝, 長興의 沈南一, 寶城의 安桂洪, 珍島의 李德三, 秋祺燁 등을 비롯하여 柳宗玟, 楊允淑, 鄭聖賢, 朴道京, 申甫鉉등이 모두 이시기의 猛將들이었다.

이제 日警 全南警務課에서 1913년에 作成한 甲種 機密文書인 「全南暴徒史」를 中心으로 湖南義活의 活躍을 살펴보자.

1907年 9月 20日 金有聲이 이끄는 3백여명의 義兵이 靈光邑을 공격하여 分派所를 공격하였으며 10月 18日에는 奇三衍의 部下 30여명이 靈岩, 茂長등지를 배회하며 電柱를 絶斷하고 天道敎人 金某와 一進會員 崔某를 살해하였다. 그런뒤 그들은 12월 7일에는 長城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에서 前長城 郵便取扱所長 南部龍五郎을 살해한뒤 日本軍의 공격으로 피한뒤 그날 밤 70여명의 의병은 法聖浦를 공격 駐在所 건물과 在留日人 가옥 7동과 가구들을 불태웠다<sup>56)</sup>. 12월 25일에는 羅州 三加面長 柳宜根집에 金太元 麾下의 30여명이 義兵이 나타나 그를 총살시켰다.

1908년 1월 1일에는 80여명의 義兵이 潭陽을 공격하여 日人 國久權槌와 金巡查를 총살하였으니 이곳 潭陽부근은 義兵의 出沒이 심해 在留民(日人)들은 철수했고 日韓官吏들도 辭意를 表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sup>57)</sup>. 1월 3일에는 金津의 부하 1백여 義兵이 咸平駐在所

<sup>55)</sup> 朴性壽, 前揭書. p.183.

<sup>56)</sup> 李一龍譯, 前揭書. pp.27~30.



를 공격하였으며, 17일에는 昌平郡 長南面長집에 30여명의 義兵이 나타나 金品을 약탈했고 務安에서도 日人 鎌田의 집과 韓人가옥 2채를 불살랐으며 咸平의 金先達집에 金太元の 부하 20여명이 나타나 金品을 탈취하였다<sup>58)</sup>.

1월 30일에는 奇三衍의 3백명 義兵이 潭陽을 습격한뒤 출동한 日軍과 싸웠으나 淳昌郡 福興面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서 義兵은 四分五裂되어 그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3월 22일에는 光州郡 一進會員 白樂會가 會員 2명과 술을 마시다 義兵에게 살해당하였고 長城의 一進會員 洪在萬도 그리고 27일에는 長城의 一進會員 秋月龍도 義兵들에게 살해 당하였다. 3월 29일에는 光州郡 所旨面에서 金聿이 日軍에게 체포되었다. 또 4월 1일과 3일에는 潭陽과 順天에서 각각 天道敎人 張樂陰과 金性守가 義兵에게 살해되었고 3일에는 靈光에서 第二特設巡查隊의 密負巡查 金良辰이 살해 당하였다. 9일에는 順天 松光面에서 一進會員 陳性壽가 義兵에게 살해되었고 良田面에 30명의 義兵이 나타나 지난달 19일의 전투의 敗因이 洞民의 密告때문이라고 洞民들을 구타하고 民家 4동을 불살랐다<sup>59)</sup>. 또 4월 13일에는 求禮郡 津上面에 義兵이 나타나 洞民을 구타하고 天道敎人 집을 불태웠으며 順天에서 一進會員 金負浩가 長城郡 北一面에서는 結稅領收員 金箕裕가 총살당했다. 18일에는 長城郡 鹿津洞에서 一進會員 宣成奎가 살해되었다. 그러나 4월 25일 金太元은 咸平郡 烏山面에서 日軍과의 전투에서 戰歿하였다<sup>60)</sup>. 또 그의 동생 金聿도 이날 총살되므로 맹활약을 하였던 형제 義兵將이 살아지게 되었다.

5월 7일에는 順天郡 月燈面에서 一進會員 張道烈, 金漢宗이 義兵에게 살해당하였고 17일에는 順天郡 雙岩面에 電柱 2개가 絶斷당했으며, 30日 月燈面에서 一進會員 金道洪이 살해되고 6월 1일 咸平에서는 公錢領收員 金台琄이 義兵에게 公金을 탈취당했다. 또 務安에서도 公錢領收員 李庸運이 公金을, 6월 5일에는 光陽郡 郡主事 李在華가 家財를 약탈당하고 집이 放火되었으며 7일에는 潭陽 文安明外 3인의 집과 이튿날에는 郭正用外 2명의 집이 金品을 약탈 당했다<sup>61)</sup>. 6월 13日 長城邑에 사는 日人 森田政一이 月坪市場에서 돌아오다 다른 1명과 함께 義兵에게 살해당하였으며, 20日에는 光州郵便局 遞送人 나카가와(中川己之吉)가 上谷面 蓮花村에서 義兵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하고 우편물도 빼앗겼다. 27日에는 昌平駐在所 巡查 曹康洛이 吳某와 함께 義兵의 공격을 받아 살해되었고 7월 7日 順天郡 西面에서 一進會員 朴明瑞가 살해당했고 9日 오후 8시 農商工部 技師 엔도(遠藤垂三郎)外 5명이 水産調査를 위해 莞島郡 金堂島에 상륙하려다 60여명의 義兵의 공격을 받아 급히 피난하였다.

한편 8월 15일에는 寶城에서 林先達이 체포되고 16일에는 淳昌에서 吳在洙가 귀순, 8월 22일에는 長城에서 金基洙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8월 24일에는 安桂洪이 이끄는 70여명의

57) 李一龍譯, 前揭書, p.33.

58) 李一龍譯, 前揭書, p.33.

59) 李一龍譯, 前揭書, p.41.

60) 李一龍譯, 前揭書, p.44.

61) 李一龍譯, 前揭書, pp.50~51.

義兵이 寶城에서 日軍을 공격 4명의 중상자를 내게 하였고 26일 沈南一이 이끄는 1백여명의 義兵은 靈岩守備隊長 구스모도(楠本)대위를 요격하여 1명을 죽이고 3명을 죽였다<sup>62)</sup>. 3일에는 谷城에서 谷城財務署 雇員 丁來鶴을 총살했으며 9월 1日 光陽郡 津下面에 義兵이 來襲하여 日人 漁夫 가쿠노(角野仁三郎)와 그의 처 그리고 그의 아들을 총살하고 가옥을 불사른뒤 다시 이 마을의 雜貨商 이시다(石田耕作)집을 공격 고용인 다카하시(高橋吉助)를溺死케 하고 해안에 베어둔 일본어선을 불살랐다<sup>63)</sup>. 9월 26일에는 莞島 郵便取扱所 遞送人 노부쿠니(信國謙次)가 義兵들에 의해 海南으로 가는 도중에 살해되었으며 靈光邑에서도 日人 구가(久我元吉)가 義兵에게 권총사격을 받아 그의 처와 중경상을 입었다. 26일에는 長興郡 柳技面에서 沈南一이 이끄는 백여명의 義兵은 金警視가 이끄는 18명의 巡查隊와 충돌하여 1명의 巡查를 죽이고 4명을 부상시켰다. 10월 3일에는 寶城郡 福內場에 1백20여명의 義兵이 騎兵隊를 기습하여 宿舎 및 마굿간에 放火하고 公用書類를 燒却하였다. 또 4일에는 長城郡 西面에서 朴成權과 朴眞燁이 密偵으로 인정되어 義兵에게 살해 당하였다<sup>64)</sup>. 12일에는 綾州郡 道林面에서 2백여명의 義兵이 梁汝正의 집에 來襲하여 그의 친동생 梁泰振을 총살하고 衣類와 雜品을 약탈하고 이튿날 東面 梨陽院村에서 綾州邑에 사는 自衛團長 朱聖振과 林春和를 살해했다<sup>65)</sup>. 17일에는 全海山이 이끄는 1백50명의 義兵과 히라노(平野) 討伐隊가 羅州 道林面에서 충돌하였다. 18일 20일에는 順天郡 双岩에서 義兵들이 電柱 1개를 절단하고, 西面에서는 守備兵을 공격하여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혔고 22日에는 히라노(平野) 討伐隊가 威平郡 여왕面에서 全海山과 沈南一의 합동義兵 150명과 충돌했고 이튿날 平林面에서 다시 全海山, 沈南一, 曹京煥, 金基順의 合同義兵 250명과 충돌했으며 26일에는 梁鎮汝가 이끄는 義兵 20여명과 나카고지(中小路)軍曹의 경찰과 충돌하였다. 또 10월 29일 順天에서 11월 9일에는 長興에서, 務安에서 14일 潭陽에서 각기 日人을 살해하거나 집에 불을 질렀다. 23일에는 全海山이 이끄는 3백명의 義兵이 光州守備隊와 충돌하고 25일에는 梁振汝가 이끄는 백여명의 義兵이 야마다(山田)小尉가 이끄는 20여명의 討伐隊와 충돌하였다<sup>66)</sup>. 26일에는 全海山の 義兵 170명이 長興을, 沈南一의 150명의 義兵이 綾州를 공격하였다. 12월 2일 昌平에서 一進會員 鄭在三과 吳在燮이 그리고 徐光三, 鄭吉仲이 각각 약탈당했고 5일에는 莞島郡 助茲島에서 京城 明新學校 主務員 方允榮과 金益煥이 義兵에게 총살당했고 光州郡 瓦谷面에서는 鄭德兼이 살해당했다. 또 10일에는 海南郡 松始面에서 一進會員 金益巡과 金亨運이 살해당했고 11일에는 莞島에서 日人 이찌다카(一宅市兵衛)가 14일에는 康津郡 內面에서 朴實俊이 15일에는 靈光郡 大安面에서 李興澤이 29일에는 羅州에서 黃道玄이 각각 義兵에게 살해당하였다<sup>67)</sup>.

62) 李一龍譯, 前掲書, p.61.

63) 李一龍譯, 前掲書, p.61.

64) 李一龍譯, 前掲書, pp.65~67.

65) 李一龍譯, 前掲書, pp.65~67.

66) 李一龍譯, 前掲書, pp.70~75.

67) 李一龍譯, 前掲書, pp.77~80.

1909년 1월 1일 1백명의 義兵이 羅州郡 古幕院 分遣所를 공격하여 補助員 2명을 사살하였고, 光山과 2일 谷城郡 竹谷面과 務安邑內에, 4일에는 長城郡 外東面등 각지에서 義兵이 나타나 金品을 奪取하거나 一進會員을 살해하였다. 1월 10일에는 曹京煥이하 50여명의 義兵이 光州 雲水洞에서 야카다(山田) 討伐隊의 공격을 받아 曹京煥이하 20여명이 죽고 10여명이 체포되었다. 19일에는 沈南一과 朴民洪이 이끄는 1백20여명의 義兵은 羅州에서 榮山 浦憲兵分隊와 또 이튿날에는 朴士華가 이끄는 1백50의 義兵이 前記分隊와 22일에는 同分隊가 靈光에서 全海山이 이끄는 50명의 義兵과 交戰하여 彼我間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sup>68)</sup>. 2월 7일에는 順天郡 西面에서 전선 수습미터가 12일에는 靈岩에서 電柱 3개가 절단당하였다. 16일에는 順天에서 金國辰이 17일에는 長興에서 朴亨道가 義兵에 의해 살해당했고 24일에는 靈光守備隊가 佛光山아래에서 義兵의 공격을 받아 3명이 부상당했고 25일에는 羅州에서 義兵에 의해 日人 하마자끼(賞崎) 巡查監督이 중상을 입었다. 25일부터 11일간 歩兵 第14聯隊 第二大隊가 討伐隊를 조직하여 각 방면의 討伐을 開始하였는데 그 編制를 보면 大隊本部는 光州守備隊에서 요시다(吉田) 少佐이하 21명이, 仙岩隊는 무라오카(村岡) 大尉이하 21名, 三巨里隊는 기찌세(吉瀬) 中尉 以下 21名, 南平隊는 스스무(進) 中尉 以下 10名, 綾州隊는 에리구찌(江里口) 大尉 以下 11名, 靈岩隊는 이구마(伊熊) 中尉 以下 16名, 海南隊는 시마다(島田) 中尉 以下 21名, 夢巖隊는 하세가와(長谷川) 中尉 以下 21名, 羅山隊는 야마다(山田) 少尉 以下 14名, 月亭城停止斥候는 하야시(林) 上兵等 以下 4名, 月平隊는 卒 4名으로 구성되었다<sup>69)</sup>. 그리하여 26일에는 에리구찌(江里口)의 스스무(進) 討伐隊의 朴明洪이 이끄는 2백여의 義兵이 榮山浦 鐵川부근에서 충돌하였고 또 寶城에서는 安桂洪이 이끄는 義兵 20여명과 日軍이 충돌하였고 27일에는 이구마(伊熊) 中尉가 이끄는 靈岩隊에 의해 靈岩동북쪽 金山에서 朴明洪이하 23名이 사살되었다<sup>70)</sup>.

3월 2일 順天守備隊 다카노(高野) 少尉 以下 7명이 30명의 義兵과 충돌했고 6일에는 靈光에서 朴京旭이 이끄는 60명의 義兵이 日軍과 충돌했고 同郡 九水面에는 60명의 義兵이 습격하였다. 8일에는 海南郡 北斗終面(現 北平面)에서 우편호송을 위해 출동한 5명의 守備隊가 40명의 義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11일에는 靈光에서는 鄭大鉉이 이끄는 80명의 義兵이 駐在所를 습격하였고 13일에는 南平分遣所 憲兵 5명과 吳成術이 이끄는 60명의 義兵이 光州郡 大技面(現 光山郡 大村面)에서 충돌하였다. 14일에는 玉果에서 梁相基가 이끄는 20명의 義兵이, 16일에는 潭陽에서 姜判然이 이끄는 20명의 義兵과 日軍이 충돌했고 20일에는 順天에서 50명의 義兵이 靈光에서는 鄭大洪이 이끄는 50명의 義兵이, 谷城에서는 43명의 義兵이, 24일에는 順天 双岩面에서 60명의 義兵이 日軍과 충돌했다<sup>71)</sup>. 24일 靈岩의 棉花栽培所가 義兵의 습격을 받았고 25일에는 麗水 財務署長 梁命熙, 領收員 金義培와 다

<sup>68)</sup> 李一龍譯, pp.88~90.

<sup>69)</sup> 李一龍譯, 前揭書, p.93.

<sup>70)</sup> 李一龍譯, 前揭書, p.93.

<sup>71)</sup> 李一龍譯, 前揭書, pp.94~100.

른 2명이 義兵에게 살해되고 興陽郡 南陽面(現 高興郡 南陽面) 領收員 趙河信이 義兵의 습격은 받았고 昌平에서는 一進會員 宋孟采이, 28일에는 昌平分遣所 補助員 崔元植, 張鳳彦이, 寶城에서는 天道敎人 朴奉祚가 義兵에 의해 살해당했다<sup>72)</sup>.

4월 2일에는 康津에서 30여명의 義兵이 船倉의 日本漁船을 습격하여 후루기모(古城某)를 즉사시키고 다른 2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船具와 기타 물건을 바다에 던졌고, 3일에는 安某가 이끄는 1백명의 義兵이 長興에 나타나 一進會員 朴大洪과 方立西를 총살했으며, 5일에는 靈光의 李文鵬이 습격 당했고 7일에는 突山郡(現 麗川郡) 箕竹島에서 漁商 와다(和田太市)의 2명이 義兵의 공격을 받아 와다는 총살되고 돈과 船具를 약탈당했다. 7일에는 順天 申弘求집에, 長城面長兼 領收員 金洪中집에 11일은 寶城 魏秉煥집이 각기 義兵에게 약탈당했다. 14일에는 靈光分遣所는 咸平 海保面에서 全海山, 朴京旭, 金元國이 이끄는 3백명과 충돌했고, 15일에는 靈岩에서, 18일에는 羅州에서 羅成化가 이끄는 義兵이 日軍과 충돌했으며, 20일에는 順天 雙岩面에서 停止斥候 고가(古賀)上等兵의 2명이 安桂洪 義兵의 공격으로 사망했고 21일에는 法聖浦의 日軍이 靈光에서 40여명의 義兵의 공격을 받았다. 24일에는 智島郡(現 新安郡) 駐在所에 의병의 공격이 있었고 24일에는 務安의 憲兵出場所를 30명의 의병이 공격하였으며, 26일에는 沈南一이 이끄는 義兵 3백명이 長興을 공격하여 공전영수원 鄭士欽을 총살하고 一進會員 牟子先을 총살하였다. 또 27일에는 靈光에서 全海山이 이끄는 1백여 義兵과 日軍이 28일에도, 29일에는 光州郡 古沙面(現 光州市 山水2洞)에서 50명의 義兵이, 綾州에서는 沈南一이 이끄는 1백50명의 義兵이 각각 日軍과 충돌하였다<sup>73)</sup>. 한편, 4월 하순부터 光州守備 第二大隊와 南原守備 第一大隊가 合同해서 順天, 寶城間에 出沒하는 安桂洪의 討伐을 개시 하였다. 그리하여 光州, 綾州守備隊는 4월 24일 까지 同福沙平場, 福內場부근을 수색하고 26일 아침까지 順天郡 廣川店과 同福郡 福內場까지의 중간지점인 牛山에 집합, 同地点에서 다시 部署를 정해 綾州守備隊長 에리구찌(江里口)大尉 지휘아래 寶城, 長興方面의 수색을 실시한다. 또 南原, 求禮, 順天의 각 수비대는 松峙, 石實場, 住岩場, 松廣寺, 令峰부근을 수색하고 다시 상황에 따라 部署別로 행동한다는 것이다<sup>74)</sup>.

5월 1일 綾州에서 金允中이 이끄는 15명의 義兵과 日警과 충돌했다. 또 이날 谷城에서는 金光益, 2일에는 康津에서 공전영수원 尹相洪집에, 3일에는 昌平에서 金亨培집에, 5일에는 羅州에서 하시모도(橋本某)집에, 6일에는 長興에서 一進會員 崔義俊집에, 7일에는 靈光郡 大安面長 沈澤一집에, 9일에는 昌平 朴垠秀와 金基鉉집에, 10일에는 順天 金永先집에 각각 義兵이 습격하여 金品을 奪取하거나 사살하였다. 12일에는 兵營分遣隊 다카기(高木)一等卒 이하 3명이 綾州熊峙에서 義兵의 공격을 받았고 14일에는 20여명의 義兵이 珍島郡 義新面에 상륙하여 郭良兼과 郭萬集을 구타하여 金品을 奪取하고 放火하였고, 16일에는 珍島邑

72) 李一龍譯, 前掲書, pp.94~100.

73) 李一龍譯, 前掲書, pp.102~107.

74) 李一龍譯, 前掲書, p.107.

의 吳在光을 총살하였다. 17일에는 梁相基가 이끄는 40명의 義兵이 潭陽에 來襲하였으며, 18일에는 寶城郡 福內場에서 偵察斥候兵 2명과 통역 1명이 義兵에게 사살되었고 19일에는 金東洙가 이끄는 50명의 義兵이 光州郡 德山面(現 光州 柳德洞)에서 日軍과 충돌하였고 20일에는 다가하시(高橋嘉七郎)가 그의 소유선 水昌號를 타고 莞島 海岸에 정박중 50명의 義兵의 습격을 받아 총살되었다. 24일 寶城에서 綾州守備隊 特務曹長 이하 18명이 安某가 이끄는 1백명의 義兵과 충돌하여 日兵 1명을 사살하였다. 또 같은날 寶城에서 수십명의 義兵과의 충돌에서 日兵 1명이 사살되었다<sup>75)</sup>.

6월 1일에는 朴士華가 이끄는 50명의 義兵은 靈岩에서 日軍과 충돌하였으며 2일에는 鄭大洪이 이끄는 40여명의 義兵이, 7일에는 羅成化가 이끄는 50명의 義兵이 羅州에서, 日軍과 충돌하였다. 9일 莞島에서 莞島守備隊 上等兵 以下 3명이 康津에서 義兵에게 총격을 받아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1일에는 羅州에서 朴士華가 이끄는 70명의 義兵이 日軍과 충돌했고 15일에는 金元國이 체포되었다. 그는 曹京煥의 先峰將으로 활약하다가 曹京煥이 체포되자 군사를 이끌고 咸平을 본거지로 光州, 羅州, 綾州, 同福, 昌平, 潭陽, 長城, 靈光의 各郡을 휩쓸던 猛將이었다<sup>76)</sup>.

16일에는 長興에서 魏文烈이, 昌平에서는 丁建燮이 義兵에게 살해되었으며 李錦齊가 이끄는 40명의 義兵이 咸平에서 日軍과 충돌했고 22일에는 興陽에서 守備隊長以下 5명이 義兵의 공격으로 2명이 부상당하였다. 27일에는 海南郡 清溪面에서 秋騏燁, 朴平南이 이끄는 80명의 義兵이 日軍과 충돌했고 28일에는 長城郡 北上面에서 金有聲이 이끄는 40명의 義兵이 日軍과 충돌했고 30일에는 羅州에서 義兵의 공격으로 補助員 一名이 전사하고 부상을 당하였다.

7월 1일 長興郡 長西面에 沈南一이 이끄는 60여명의 義兵이 來襲했으며 康津과 寶城에서 李某와 崔泰京을 義兵이 총살했다. 그리고 谷城에서도 劉用學집에 義兵이 나타나 金品을 약탈한 뒤 그를 죽였다. 2일에는 25명의 義兵이 務安郡 三鄉面에 있는 內部治道局出強所와 日人 民家에 來襲하여 구리야마(栗山鶴吉)을 총살하고 다른 2명을 부상케 했다<sup>77)</sup>. 또 3일에는 安桂洪, 林昌模가 이끄는 1백70명의 義兵이 同福에서 里長 申公百을 죽였고 4일에는 1백50의 義兵이 務安郡 西二面(現 清溪面)의 오끼(沖淺)집에 來襲하여 金品을 탈취했다. 또 咸平에서는 李錦濟가 이끄는 50명의 義兵과 日軍과 충돌했고 14일에는 朴士華가 榮山浦分隊長 오오하라(大原)大尉에게 편지를 보내어 會見을 청하자 이에 응락하여 會見했다. 會見의 要旨는 投降의 뜻을 비치고 자신의 한몸을 바쳐 부하 1백명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후일에 確答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sup>78)</sup>. 17일에 靈光에서 朴砲대가 이끄는 30명의 義兵은 日軍과 충돌했고 18일에는 朴士華의 부하 15명이 榮山浦分隊에

<sup>75)</sup> 李一龍譯, 前掲書, pp.110~114.

<sup>76)</sup> 李一龍譯, 前掲書, pp.115~117.

<sup>77)</sup> 李一龍譯, 前掲書, pp.117~120.

<sup>78)</sup> 李一龍譯, 前掲書, p.124.

投降해왔다. 또 19일에는 朴士華와 先鋒將 金善仲이 榮山浦分隊에 投降했으나 朴士華는 그 날밤에 도주했다<sup>79)</sup>. 또 7월중에 姜士文이 光州에서 체포되고 秋琪華가 海南에서 部下에게 살해되고 金有聲이 부하 2명과 함께 榮山浦分隊에 投降했다<sup>80)</sup>.

7월 24일에는 金永伯의 20명의 義兵이 長城郡 北上面에서 충돌했고 李起巽의 20명 義兵은 26일 靈光 森北面(現 長城郡 森溪面)에서 日軍과 충돌했다. 8월 3일 林鶴奎의 80명 義兵은 長興에서 光州守備 하라(原少尉)의 日軍과 충돌했으며 5일에는 光山에서 尹京志와 羅文先을 살해하고 11일과 12일에는 長城 文元瑞와 咸平 李康均이 義兵에게 金品을 奪取당했다.

이달에 在大邱 韓國臨時派遣隊 司令官 와다나베(渡邊)少將이 軍司令部의 計劃에 따라 派遣隊의 全兵力을 동원 全南의 暴徒大討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8월 25일에는 討伐隊의 가지무라(梶村)中尉 以下 40명의 경찰 偵察隊에 의해 長城郡 甲鄉面(現 潭陽郡 大田面)에서 梁鎭汝가 체포되었으며 西二面에서는 李仲伯이 체포되었으며 30일에는 黃斗一이 부하 8명과 함께 海南守備隊에 投降하였다. 그러나 同日 朴士華가 이끄는 50명의 義兵이 靈岩에서 金中丞을 살해하였다. 9월 18일에는 黃斗一의 부하 21명이 19일에는 4명이 海南守備隊에 投降했고 林夏中과 金東俊이 체포되었다. 또 沈南一의 部下 8명과 安某의 部下 30명이 19일에는 安의 部下 任在文이하 25명이, 20일에는 8명이 投降했다<sup>81)</sup>. 21일에는 梁相基의 後軍將 李文學가 체포되고 25일에는 寶城郡을 본거지로 各군을 橫行하며 全海山 沈南一과 더불어 가장 유명하였고 많은 활약을 하였던 安桂洪이 寶城에서 체포되었다. 또 同日 長興에서는 孫孟將 權澤이 체포되었고, 26일에도 金敬允이 興陽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梁東煥이 이끄는 80명의 義兵은 咸平에서 28일에는 朴道敬이 이끄는 30명의 義兵이 長城郡 西三面에서 각각 日軍과 충돌했다<sup>82)</sup>.

10월 2일에는 安桂洪의 部長 吳參奉이 체포되고 5일에는 張仁肖의 先鋒將 金聖云이 莞島에서 체포되고 9일에는 綾州郡 風峙에서 沈南一과 그의 部將 姜武景 및 妻妾이 체포되었다. 또 13일 寶城에서 林昌模以下 7명의 義兵이 체포되었고 11월 8일 梁相基의 中軍將 劉秉基가 체포되고 11일에는 朴京旭이 자수하였고 12월 17일 榮山浦分遣隊에서 파견한 變裝隊에 全北 長水에서 全海山이 체포되고 22일에는 申甫鉉이 全北 井邑부근에서 守備隊에 체포되었다<sup>83)</sup>.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義兵들은 潭陽, 和順, 興陽, 昌平, 莞島, 海南 등지의 日本憲兵分遣隊나, 警察分派所를 직접 奇襲하거나 日本軍守備隊를 夜襲하였다. 그리고 또 日本人 農場을 습격하여 농사경영을 단념케 했고 日本人 行商이나 고리대금업자 소작료 징

79) 李一龍譯, 前揭書, p.126.

80) 李一龍譯, p.127.

81) 李一龍譯, 前揭書, pp130~136.

82) 李一龍譯, 前揭書, pp.137~139.

83) 李一龍譯, 前揭書, pp.139~144.

수원, 세금징수원, 우체부, 토지측량기사 등을 사살하여 일본인의 왕래를 방해했다. 義兵들은 偵察이나 警護次 파견된 일본군 騎兵을 산길에서 潛伏했다가 奇襲 사살하였다. 의병들의 공격은 內陸地方뿐 아니라 海岸지방에서도 敢行되어 일본 漁船을 잡아 불살라 버렸고 쌀을 나르는 배를 잡아 침몰시켜 일본인들의 고기잡이와 米穀輸送을 방해했다. 또 다른 지방에 비해 特異한 것은 海上義兵의 活動이었다. 이는 初期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秋祺燁, 朴平南, 黃俊聖, 李德三 등의 義兵將은 木浦, 海南, 莞島, 新安, 珍島, 突山등을 중심으로 猛活躍을 하여 日本漁船을 습격하고 商船을 습격하여 商品을 약탈하고 米穀의 海上輸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같이 海上義兵이 活動하게 된것은 그들의 生活資料인 莞島의 山林이 日人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餓死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릴바에야 日人과 싸워 죽는것이 낫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木浦市 日人 居留地의 우물에 毒藥을 넣어 日人을 沒殺하려는 計劃까지 세웠으며 日人이 관리하는 燈臺까지 습격하여 지나가는 日本汽船을 停船시켜 이를 擡격하여 日警은 수차에 걸쳐 수색을 감행하고 軍艦까지 동원하여 示威하였다<sup>84)</sup>. 海上義兵들은 배를 타고 沿岸의 市, 邑을 공격하여 日人을 죽이고 商品과 商店을 불살라 버렸다. 이러한 海上義兵의 活躍은 仁川近海에서도 벌어져 일본 침략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 또 義兵들은 親日派인 一進會員과 天道教人에 대한 頻煩한 擡격을 가해 이들을 살해하거나 금품을 약탈하기도 하고 악질 土豪에 대한 약탈과 응징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義兵抗爭에 대해 日帝는 강력한 討伐作戰으로 맞섰다. 일본의 한 公式的인 報告는

“智理山の 西南쪽 求禮郡에는 1907년 11월에 각방면의 義兵 수백이 集合한데 이어 소수의 경찰관으로 對抗力이 없다<sup>85)</sup>”

고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3월의 한 보고는

“全南北의 賊徒는 이미 큰 集團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首魁인 奇參衍, 金容球는 죽고 金聿은 체포되었으며 李進士는 귀순을 신청하는 등 敵勢떨치지 않아 점차 沈靜해 지는 듯 하다<sup>86)</sup>”

고 하였다. 그러나 1909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하였으니 公式的인 한 日本憲兵報告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4개월 동안의 全南義兵 出沒回數가 月百回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10명 내지 5명의 義兵活動까지 합한다면 4배가 넘는 숫자일 것이다. 이러한 南韓의 義兵을 두고서는 도저히 한국의 安寧과 秩序를 夢想조차 할 수 없는 實情이라고 吐露하고

<sup>84)</sup> 前掲, 獨立運動史, 卷1, p.326. 종합.

<sup>85)</sup> 前掲, 獨立運動史, 卷1, p.326. 종합.

<sup>86)</sup> 前掲, 獨立運動史, 卷1, p.326. 종합.

後期義兵의 대담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沈南一, 姜武景, 安桂洪, 林昌模 등은 部下를 戒飭하고 악탈을 금하며 義兵國爭의 永續化와 義兵部隊의 強大化에 힘썼다는 사실을 是認하였다<sup>87)</sup>. 義兵國爭의 永續化는 곧 日本의 對韓政策의 실패를 招來하며 統監政治의 不當性を 痛로하여 列強으로 하여금 이를 容豫케 함으로서 한국독립을 確固히 하려는 것이다. 어쨌던 義兵抗爭의 激化는 日本人의 商業行爲를 停止시켰다. 일본관리의 税金徵收 行爲와 日本人 地主들의 고리대금 행위, 小作料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더이상 한국에다 投資할 의욕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木浦港이나 群山港을 통해3가던 쌀은 아주 줄어들고 많은 日本人들은 本國으로 돌아갔다. 한편, 日本軍은 처음 湖南에 配置했던 騎兵隊를 步兵隊로 바꾸고 兵力을 增加시켰다. 또 憲兵補助員을 두어 압잡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特設巡查隊란 韓國人 軍人出身의 部隊를 조직하여 義兵과 싸우게 했다. 또 日本軍은 기관총과 대포만이 아니라 海上에 軍艦을 出動시켜 海上義兵들에게 武力示威를 하는 한편 陸戰隊를 各島嶼에 上陸시켜 市街行進까지 시켰다<sup>88)</sup>.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의 작전은 커다란 成果를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義兵은 韓國民 특히 農漁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日本軍은 義兵의 精銳하고 신속한 動態를 파악하지 못하여 有効適切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日本官吏의 報告에 의하면 日本 警官이나 軍隊가 一般住民에게 義兵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도 一切 모른다고 하는것이 例事라 말하고 있다.

“暴徒의 一般人民과의 關係를 보건대…… 討伐에 從事하는 자가 지방주민에게 暴徒의 來往이나 動情을 물어보면 그 實況을 얻거나 심히 곤란하며 住民은 모른다는 답을 예사로 한다. 특히 暴徒의 出沒이 가장 심한 지방에서는 洞長들까지도 사실을 隱蔽하여 暴徒를 庇護하는 경향이 있다.”<sup>89)</sup>

또 1909년 3월 全羅南道 觀察使 申應熙의 諭告 第一號에도

“밭짓을 가리지 않고 匪徒의 偵察討伐에 힘써 苦心奔走하였으나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음은 兪경 暴徒의 情況이 不明하고 地方人民中 暴徒의 追害를 두려워 하거나 이를 동정하여 그 情況을 감추고 이를 경찰 또는 수비대, 헌병대등에 보고하지 않은 데 起因한다. 또 드물게 보고하는 자가 있어도 번번이 시일이 지나거나 도주한 후의 일이어서 대부분 시기를 놓쳐 討伐隊로 하여금 往往 도중에 그치게 하는 일이 적지않다. 이 폐단을 없애지 않고서는 아무리 경찰 또는 수비대, 헌병대에서만 苦心 焦燥해 한다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sup>90)</sup>

고 함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또하나 義兵의 作戰이 갈수록 세련되어 소수의 병력과 消耗없

<sup>87)</sup> 編冊 全南警秘 1004號 1909. 6月 1日.

編冊 全南警秘 156號 1909 1月 28日.

<sup>88)</sup> 朴性壽, 前揭書, p.184.

<sup>89)</sup> 前揭, 獨立運動史, 卷1, p.807.

<sup>90)</sup> 暴徒編冊 全南警秘 第384號 1909年 3月 8日字



는 작전으로 日本軍警에 큰 損實을 주었다. 그들은 물샴틀 없는 작전구역을 設定하여 조직적이며 恒久的인 抗戰을 계속하는데 성공 하였다.

### 3) 南韓大討伐作戰

南韓義兵의 鎮壓作戰은 1909年 9月 1月부터 약 40일에 걸쳐 全南北 義兵에 대해 실시한 日本軍 最大의 作戰이었다. 日本은 在大邱 韓國臨時派遣隊司令官 와다나베(渡邊)少將이 軍司令部の 계획에 따라 步兵 2개聯隊와 第11艇隊(수뢰정4)의 石油發動機船과 우메마루(梅丸) 승조원과 수 미상의 現地 憲兵, 警察을 총동원 하였다. 작전구역은 우리나라 里數로 6천평방리에 달했고 포위선은 연장 3,501리로 陸上으로는 全北 扶安으로부터 秦仁, 葛潭, 南原을 잇는 線에서 蟾津江 上流 院村에서 河東, 高浦에 이르는 線을 外圍線으로 한다<sup>91)</sup>. 그리하여 步兵 2개聯隊와 現地の 守備兵, 憲兵, 警察과 협력하여 西海岸쪽으로 포위선을 좁혀가고 다른 一隊는 꼭 중간지점이 되는 곳에서 또 하나의 포위선을 쳐서 포위선을 벗어나는 義兵을 잡았다. 이렇게 2차 수색전에 들어가 海軍 水雷艇은 海岸을 봉쇄하고 육지를 수색해 내려오던 步兵部隊는 海岸線에 다달라 다시 3차 수색전에 들어간다. 즉 水雷艇의 협조아래 沿海島嶼를 모조리 수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군이 실시한 수색방법이 철저한 것이었다. 즉

”1. 마을을 수색, 검거할 때에는 먼저 마을을 둘러싸고 경비병을 배치 후 面長, 洞長을 招致하고 미리 마련한 남자명부 또는 民籍에 의거하여 남자를 對照 點號하고 의심스러운 자를 체포하고 심문결과에 따라 폭도를 포박한다.

2. 수색은 가장 엄밀하게 실행하고 준명심곡에 이르기까지 斥候 또는 部隊를 파견한다. 특히 마을의 수색에는 야간에 갑자기 검거를 행하거나 마을을 통과하는 채 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서 수색하는 방법을 쓴다.

3. 군복을 착용하여 수색하면 폭도에 探知되기 쉬우므로 韓服으로 변장함이 좋다.

4. 마을의 수색은 적어도 2회 이상으로 하되 주요한 지방에서는 심수회의 수색을 거듭한다.

5. 총기 수색을 위해서는 육내의는 물론 담이나 경작물 사이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許與하는 한 수사를 한다<sup>92)</sup>”

일본군 자신의 표현대로 이 대토벌의 방법은 일시적인 토벌이나 수색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토벌 작전이었다.

이처럼 악랄한 방법으로 전라도의 義兵을 진압하려 한 日帝는 鎮壓 實施報告에서 가장 인도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을을 수색할 때에는 한층 주의를 더하여 양민과 폭도의 判別에 신중한 고려를

<sup>91)</sup> 李一龍譯, 前揭書, pp.130~132.

<sup>92)</sup> 前揭, 韓國獨立運動史, 卷1, pp.811~12.

쓰고…… 토벌의 목적은 한국의 安寧을 기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暴徒를 殺戮함은 本旨가 아니다. 고로 힘써 自首를 권장하여 스스로 非理를 알게 하고…… 저항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자 이외에는 일체 살육을 금하여 곧 헌병, 경찰에 인도하여 취조를 받게하며…… 云云<sup>93)</sup>”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침략적 만행을 은폐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경찰이나 헌병, 그리고 특히 수비병들은 투항하거나 체포된 의병을 경찰 駐在所나 分遣所로 連行해 가기 전에 現場 또는 中途에서 사살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抵抗 또는 도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南韓義兵의 鎮壓結果 義兵將 103명을 체포 誅殺 또는 自首시켰다고 하지만 그중 자수한 자는 불과 19명, 체포된 자는 61명, 살해된 자가 23명이었다<sup>94)</sup>. 그리고 10월 25일 大討伐作戰을 끝낸 결과 일본군은 義兵 420명을 射殺했고 1,687명을 체포 또는 自首하였는데 이중 自首者는 850명이었고 同年 말까지 3,100명의 의병을 체포하였다. 또 鹵獲한 銃器는 455挺이며 刀鎗은 51정이었다<sup>95)</sup>. 일본경찰의 한 伏命書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재생시켜 주고있다.

“首魁가 체포되고 自首하는 부하의 수가 매우 많아 재판소는 한때 흡수 폭도의 審問所와 같은 감이 있어 光州地方 裁判所에는 오늘날도 아직 약 백명의 폭도를 수용, 취조중이며 전라도 방면의 유력한 수괴 沈南一, 全海山, 安桂洪, 梁振汝, 朴士華, 羅成化 등 34명이 있다<sup>96)</sup>”

이렇게 3천여명이나 되는 義兵을 체포한 일본군은 起訴 猥豫한 5백명을 제외하고 이들을 모조리 재판에 回附하였다. 罪名은 殺人強盜罪였다. 1909년 9월 17일의 警察部長 公同席上에서 검찰총장 구니와께(國分)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소위 폭도라는 자들은 이름을 義學에 방자하지만 한들의 예의를 제외하면 재산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재산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무어라 주장하건 또 실제로 재산을 얻건 얻지않건 강도죄로 起訴하도록 이미 각 검사장에게 훈시해 두었다<sup>97)</sup>”

日帝는 기소유예로 돌린 500명을 河東 海南間 350리의 도로, 開川工事に 就役시켰다. 이 공사는 총공사비 21만원으로 2년간 계속되었다<sup>98)</sup>. 또 光州를 起點으로 潭陽, 淳昌, 任實을 거쳐 全州에 이르는 國道와 南으로 和順, 同福, 順天을 거쳐 晉州에 이르는 國道는 義

<sup>93)</sup>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1, pp.811~12.

<sup>94)</sup>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1, pp.811~12.

<sup>95)</sup> 李一龍譯, 前掲書, p.142.

<sup>96)</sup>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1, pp.814~37.

<sup>97)</sup> 日本公使館記錄 1909年 警察部長合同席上에 있어서의 國分 檢察總長 訓示演說 要旨.

<sup>98)</sup>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卷1, p.873.

兵의 強制就役으로 건설된 新作路였다. 이 強制勞動은 義兵들에게 “衣食의 길을 열어주고 漸次正業에 就할 良心을 喚起”시켜 줌으로써 그들은 소위 良民化 한다는 美名아래 감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09년 1월 28일 全南 警察部長이 上申한 「匪徒鎮撫策에 關한 意見具申」에 보면 이 強制勞役은 “저들 下層民에 對해 收入을 얻게 하는” 효과와 “軍隊, 警察 등의 討伐行動에도 크게 利便”을 주는 二重效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99)</sup>.

이와 같은 1909년 9월의 일본군 南韓大討伐作戰은 義兵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 호남의병의 전멸로 전국의 義兵回數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1910년 이후의 義兵抗爭은 황해도와 경기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 局限되었다.

## V. 第四期 (1910 ~ 1912)

1910년 日帝가 韓國을 合併한 후부터는 北韓의 黃海道를 위시하여 平安道, 咸鏡道와 江原道지방의 義兵이 活發하여졌는데 그 주된 이유는 南韓의 義兵은 南韓大討伐을 전후하여 南韓의 義兵이 받은 바와 같은 큰 타격을 받지않았고 또 義兵抗爭이 兩班, 儒生中心에서 平民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시기의 義兵의 대부분은 合併以前부터 活動을 하던 義兵이었으나 그중에는 庚戌國恥를 당하여 새로 조직된 義兵도 있었다.

朝鮮總督府는 1911년에 警察力을 종전의 集中配置에서 憲兵分隊 또는 分遣所를 두어 警備를 더욱 철저히 하여 義兵抗爭을 終息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義兵은 수십명 내지 7~8명의 小部隊로서 대담한 게릴라 작전을 감행하여 憲兵分遣所나 巡查駐在所를 기습하여 일본 경찰이나 헌병을 사살하는 한편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하여 그 勇猛을 떨치었다. 이 시기의 義兵活動은 경기도 楊州, 長湍, 抱川, 坡州, 朔寧, 連川등지에서 황해도에서는 白川, 平山, 延安, 海州, 金川, 戴寧, 谷山, 遂安등지, 강원도에서는 安峽, 淮陽, 平康 그리고 平南의 成川 咸南의 安邊등지에서 었으며 日警에게 막대한 타격을 준 義兵將으로서는 姜基東, 田聖西등이 抱川등지에서 洪裕元이 坡州에서 李東元이 長湍에서 延起羽가 漣川에서 李鎮龍이 平山에서 韓貞滿, 池寬錫, 金貞安, 孔泰元, 蔡應彥, 姜斗弼, 李錫庸, 鄭敬泰, 金宗泰, 崔永宇, 金丙一, 盧炳稷, 時延柳, 金正彥, 金全安, 郭漢義, 洪錫俊, 盧允煥, 崔昶永, 洪天喜, 郭先鋒, 金基錫, 金白洙등을 들 수 있다. 1908년 9월부터 1911년까지 義兵과 日軍과의 충돌은 다음과 같다<sup>100)</sup>.

	1908年 9月 1909年 8月	1909年 9月 1910年 8月	1910年 9月 1911年 8月	1911年 9月 1912年 8月	1912年 9月 1913年 8月
충돌 수	780여회	210회	52회	13회	5회
충돌의 병수	34,400餘名	3,400名	390名	70名	45名

<sup>99)</sup> 暴徒編冊 全南警秘 第156號 1909년 1월 28일.

<sup>100)</sup> 隆熙 4年 暴徒에 關한 駐劄軍通報綴.

또 1910년부터 1913년까지의 義兵의 日本憲兵과의 충돌상황은 다음과 같다<sup>101)</sup>.

義兵과 日本憲兵	1910年	1911年	1912年	1913年
충돌회수	128回	41回	5回	3回
충돌의 병수	1,832名	271名	23名	40名
일본헌병, 경찰인원	644名	252名	30名	11名
일본헌병 소비탄약	9,732발	1,745발	245발	38발
義兵의 被害 戰死	130名	21名	1名	1名
戰傷	75名	15名	1名	—
被逮	28名	19名	2名	—
損實銃器	179정	39정	4정	—
損實槍刀	62	7	1	—
損實彈藥	1,303	2,102	125	—
損實通貨	398원	6,712원	42원	—

또 日本헌병, 경찰이 충돌외에 義兵에게 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sup>102)</sup>.

	1910年	1911年	1912年	1913年
수색행동 회수	4,110回	895回	163回	27回
의병수	—	—	—	251名
일본헌병, 경찰 출동인원	—	—	—	643名
義兵의 被害 戰死	8名	—	—	1名
체포	928名	478名	93名	34名
손실총기	573정	578정	86정	36정
손실槍刀	283	693	16	1
손실탄약	805	2,601	195	58
손실화약	—	—	—	15
손실통화	121원	103원	—	2원

上記한 義兵將中에서 李鎭龍部隊는 황해도와 경기도 境界一帶를 휩쓸었다. 1910년 3월 3일 李鎭龍과 韓貞滿의 80여의병은 황해도 溫井院주둔 헌병을 포위 공격하여 궁지에 몰아 넣었다. 헌병들은 開城으로 急電하여 응원대를 요청하였다. 철도편으로 來倒한 헌병대는 金川과 鷄井방면에서 의병을 포위하려 했으나 의병들은 이를 알고 서북방면으로 이동해 버렸다. 이때 義兵들은 京義線 鐵路邊에 길이 2尺가량되는 돌을 놓아 매마침 이곳을 통과하던 京城發 急行 2番列車를 脫線시켰다<sup>103)</sup>.

1909년 초부터 1910년 2월말까지 의병들은 26개소의 우편소를 파괴하여 7,646원 87전 9리의 손실을 입혔으며 우편물 4,256통 電柱 77柱, 電線 연장 20여리를 絶斷하는등 抗擧를 계속하였다<sup>104)</sup>

그러나 朝鮮總督府의 憲兵武裝統治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義兵活動은 더욱 困境에 빠지

<sup>101)</sup> 1913 朝鮮總督府通計年報, p.380.

<sup>102)</sup> 1913\*朝鮮總督府通計年報, p.380.

<sup>103)</sup> 大韓新聞 1910年 3月 6日字.

<sup>104)</sup> 朴性壽, 前揭書, p.189.

게 되었으나 日帝가 稀世의 巨賊이라고 할만큼 눈부신 활약을 하고 神出鬼沒하여 日軍警을 놀라게 한것은 姜基東, 蔡應彥, 鄭敬泰 등이었다. 日警은 현상금을 내걸고 特別憲兵搜查班을 조직하여 이들 義兵將을 체포하려 하였다. 姜基東은 원래 韓國軍 騎兵伍長이었는데 起義하여 수백명의 義兵을 거느리고 경기도를 근거지로 하여 강원, 함경도에서 맹활약을 하였으며 1911년 체포되어 사형되었고 蔡應彥은 韓國軍 步兵隊 軍曹이었으나 군대해산후 3, 4백의 義兵을 거느리고 平南, 黃海, 江原, 黃海道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1915년 7월에 체포되어 사형되었다. 湖南倡義大將 李錫庸은 義兵 3백명을 거느리고 合併후에도 활동을 계속하다 1913년 11월에 체포되어 다음해에 사형되었다.

이리하여 殘留部隊들도 자연 解弛해지고 그 규모나 영향력은 극도로 감퇴되어 往年의 치열했던 전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倦土重來를 꿈꾸며 中國으로 건너가 抗日獨立軍으로 鬪爭을 계속하였다. 義兵抗爆에 동원된 수천명의 義兵將과 義兵의 이름은 限定된 숫자이며 우리가 알지못하는 많은 사실과 이름들이 沒却되어 있는것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 VI. 湖南地方 義兵의 性格

湖南地方의 義兵은 奇字萬이 長城에서 起義한 이래 1909년 日帝의 南韓大討伐作戰이 實施되어 대부분의 義兵將이 체포되어 義兵活動이 停止되기 까지에는 실로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反日抗爭을 계속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湖南지방이 다른 지방보다 오래도록 義兵戰爭이 계속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湖南이 우리나라 最大의 穀倉地帶이면서 농민들이 오랜 官僚的 착취에 시달려 반항의 식이 강했다는 사실과 開港後 日帝의 경제침략을 받아 더욱 어려운 생활로 허덕이게 되었다. 또 다른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커다란 타격을 1908년 이전에는 별달리 받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義兵은 民衆 특히 農漁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日本軍은 義兵의 정확하고 신속한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유효적절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1909년 3월 6일자 全南道觀察使 申應熙의 報告는 地方民이 義兵의 情況을 감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향을 지적하고 있는데<sup>105)</sup> 이것은 간접적으로 義兵側의 情報募集이 그만큼 容易했다는 사실을 暗示하고 있다. 또 義兵들은 虛荒한 浪說을 퍼뜨려 일본경찰의 신경을 건드렸다. 일본 군경은 義兵의 이런 허위정보를 그대로 믿고 황급히 달려가서 되돌아 오곤 했다. 義兵은 또 桃戰狀을 보내어 일본군을 당황하게 했는데 예를들면

“오는 9日 來戰하라 만약 來戰하지 않으면 우리가 長興邑을 공격할 터이니 그리 알아라 (1909년 5월 7일 長興 分遣所에 送達한 大韓義兵隊의 通告文)<sup>106)</sup>”

<sup>105)</sup> 暴徒編冊, 全南警秘發, 第384號, 1909년 3月 8日字.

“만일 康津駐屯 헌병으로서 우리와 交戰할 意思가 있으면 靈岩 月出山 밑으로 나오라 (1908년 8월 7일 全南 康津郡 梨旨面에 納稅督捉次出張한 郡使令에게 한말)<sup>107)</sup>”

또 그들은 근거없는 浪說을 檄文에다 적어 市場에 添付하였다.

“廣告 3월 21일 義兵 1만명의 入港할터이니 韓國人은 移據之地함<sup>108)</sup>”

1909년 3월 3일 寶城郡衙에 송달된 安桂洪의 通告文도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急步即時行軍入城할 터이니 대장의 居所는 本衙郡廳으로 정하고 中軍所는 使令廳으로, 後軍所는 刑亭廳, 軍所로는 官청으로 선정해 둘 것이다. 湖南行軍所將安<sup>109)</sup>”

또 바로 그 전날 水産組合 木浦支部大門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나붙었다.

“日本은 우리 대한 義兵에게 皆死이다<sup>110)</sup>”

그리고 木浦에는 한때 義兵들이 일본민 거주지역의 우물에 독약을 풀어 일본인을 沒殺한다는 風聞이 돌아 일본경찰의 신경은 예민하였다.

“……근일 항간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暴徒는 不日 대거 羅州邑을 습격한다고 揚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虛勢의 揚言이므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때가 때인만큼 민심동요의 경향이 없지 않으므로 當署에서는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는 바이다<sup>111)</sup>”

또 義兵들은 日本軍警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義兵區域을 형성하여 抗戰의 永續化를 기도하고 있었다. 1908년 10월 5일 羅州警察署長 威平, 靈光地區視察報告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全海山, 金基順, 曹京煥, 沈南一等 諸部隊가 각기 威平郡, 羅州郡, 靈光郡의 一定地域을 왕래하지만 교묘하게도 守備隊의 討伐을 피하고 있으며 빈번히 偵察하지만 불행히도 蹴跡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는 것이며 威平郡에 27명, 靈光郡에 4명, 羅州郡에 27명의 歸順者가 있었으나 그중 1명을 除外한 나머지 歸順者는 前記 不穩區域內에 居住하는 者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를 嚴査할 수 없다. 따라서 目下 다시 그 무리에 投身한지의 與否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風說에 의하면 적어도 그 1/5은 所在不明으로 匪徒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sup>112)</sup>

또 義兵은 戰術面에서 奇襲 또는 遊擊戰을 敢行하였다. 義兵은 火力에 있어서 뿐 아니라 일본군에 비해 訓練된 兵士가 아니었다. 近代戰의 要諦는 火器와 訓練에 있다. 그러나 義

<sup>106)</sup> 暴徒編冊 長興警察署長의 報告 1905년 5월 8일字.

<sup>107)</sup> 上揭書, 1909년 8월 8日字.

<sup>108)</sup> 上揭書, 1909년 3월 21日字.

<sup>109)</sup> 上揭書, 1909년 3월 4日字.

<sup>110)</sup> 上揭書, 木浦警察署長의 報告 1909년 3월 3日.

<sup>111)</sup> 上揭書, 羅州警察署長의 報告 1909년 1월 3日.

<sup>112)</sup> 上揭書, 羅警秘發 37號 1908년 10월 25日.

兵에게는 義兵을 지지하고 聲援하는 民衆의 힘이 背後에서 강력히 작용하고 있었다. 民衆의 支持는 遊擊戰의 絶代的 要件이었으며 遊擊戰은 近代的 裝備와 訓練된 日本軍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戰術이었다. 그리하여 義兵들은 日本軍의 銳峰을 피하면서 敵軍의 虛를 찌르는 遊擊戰을 시도하여 消耗戰을 강요하였고 日本軍은 이에 對應하여 무차별 殺傷과 焦土作戰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무차별한 蠻行은 義兵을 鎮壓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激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大韓每日新報 1909년 9월 1日字의 論說「지방의 전투」에서는

“日人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殘酷한 행동과 玉石을 가리지 않고 壓伏하는 方策은 擾亂을 영구히 止息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을사람들을 쫓아내고 부락을 燒却하는 일이 어찌 整頓之計가 될 것인가…… 지금의 情勢下에서는 日本軍의 嚴酷한 方策이 이미 怒한 民衆을 더욱 激怒하게 만드는 것이다<sup>113)</sup>”

또 1907년 9월 25일에 發한 李麟榮의 「海外同胞에게 보내는 檄文」속에서도 野蠻의인 日本軍의 極惡無道한 惡行과 蠻行을 규탄하고 그들이 進歩와 人道の 賊이라 규탄하였다.

또 義兵將 安桂洪은 日本이 韓國을 平和의 수단으로 이를 지도 개발하지않고 兵力으로 壓迫하므로 1908년초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며 義兵將 沈南一도 일본의 정책은 韓國을 德化하는데 있지않고 폭력으로 이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114)</sup>.

이렇게 日帝의 討伐, 搜索에 대응하여 聯合部隊들이 解體되어 小單位部隊로 分立하여 10여명 내외의 少數兵力으로 各地에 不斷히 出現하면서 奇襲 또는 遊擊戰法을 驅使하였다. 1908년 9월 이후 1년동안의 義兵出現回數는 거의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日本側被害도 激增하고 있다. 이리하여 1905년 5월의 木浦日本人商業會議所의 建議文은

“暴徒가 橫行하여 人民은 起居에 不安하고 一里의 行程도 安全을 期할 수 없고 險惡의 度가 오히려 이전보다 倍加되어 人民은 밤낮으로 安堵하지 못하고 賊物은 빼앗기고 生命을 잃어 그 被害가 數百件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交通은 杜絶되고 農事는 萎微하고 商業은 떨치지 못하여 直接, 間接의 被害가 莫大하다<sup>115)</sup>”

고 그 실정을 호소한 것이나 大韓協會 木浦支會長인 金奉圭란 자가 1909년 4월 20일 上京하여 會長 金嘉鎭에게 全南義兵의 실정을 보고하였다. 즉,

“全南地方은 目下 暴徒猖獗이 나날이 심해져 各種業者는 거의 廢業, 倒産狀態에 놓여있고 糊口에 窮한 자는 그 數갯가 나날이 增加하고 있다. 이들 窮民은 不得已 暴徒의 무리에 몸을 던져 그 生을 이어가려는 實情이다…… 이 狀態가 永續한다면 全南地方은 완전히

113) 大韓每日新報 1907년 9월 1日字.

114) 朴性壽, 前揭書, p.191.

115) 暴徒編冊 警高秘發 8의 1. 199年 5月條

우리 同胞의 自滅을 招來할 것이다. 하루속히 平穩狀態로 復舊시킨 良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sup>116)</sup>”

하고 그 良策이란 歸順制度를 復舊하여 各種 土木事業을 일으키고 이들 歸順者를 收容하여 一定한 生業을 얻도록하면 自然 平定될 것이라 하고 있다.

倡義文을 통하여 義兵들은 三千里疆土나 三千萬同胞를 云云하였으니 이것은 高度의 民族主義感情을 反映한 것이다. 가령 湖南倡義所 檄文에

“我二千萬 同胞兄弟여 一心合力 元氣를 振作하고 倭를 亡치고 三千里疆土를 回復하여 皇上을 泰山の 安에 置하고 億兆倉生을 救濟하다.<sup>117)</sup>”

또 義兵들은 開化를 反對하였으니 開化란 다름아닌 日本帝國主義 침략자들의 침략 手段임이 명백했기 때문이라 開化를 부르짖고 가장 先導의인 立場을 가장한 단체가 一進會였으니 一進會는 日帝侵略의 化身이나 다름없었다. 湖南倡義所 金永燁의 馳告에 보면

“所謂 開明者는 吾應不知何物이라 臣殺其君하고 子殺其父가 開明耶아 萬國通和商路는 以物之有無로 易其所宜에는 假之通和하고 吞我政府 奪我疆土 典章文物은 何事耶 論其罪惡이면 食肉剝皮라도 罪猶餘狀이다.<sup>118)</sup>”

또 米穀의 對日輸出을 막기위한 米穀賣買禁止를 주장하였다. 韓國은 日帝의 統監府 설치후 韓國貿易은 완전히 그 植民地의 構造로 전환하고 있었으니 輸出總額의 대부분(輸出 78%, 輸入 66%)이 對日貿易의 결과였고 韓國輸出品의 94%가 米穀을 비롯한 農產物이고 輸入品の 84%가 工業製品이란 사실은 韓國은 이미 日本商品의 시장일 뿐 아니라 日本의 糶 供給地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9)</sup>. 糶의 對日輸出은 韓國貧農層의 糧道의으로 나타났고 買米者에 대한 憎惡로 나타났다. 義兵所 李檄文에서는

“聞傳播之言. 則沙後浦買米之弊 枯揭國穀云矣 汝者惡習 萬萬痛憤矣 買米者 頭顱幾許介而不顧身命 而資盜糧乎<sup>120)</sup>”

또 湖南倡義所李榜文에서는 “買米藉賊者는 可謂土倭<sup>121)</sup>”라고 한 것이라든지 全海山이 1908년 12月 長城郡 西三面長 奇善衍에게 送達한 令書에

“長城郡內 各面長은 今年度 收穫米를 地方에 轉出함을 嚴禁한다. 만약 이를 犯한 자는 즉시 斬殺한다.<sup>122)</sup>”

<sup>116)</sup> 朴性壽, 1907~10年間의 義兵戰爭에 대해서 韓國史論文選集, 卷6, 歷史學會編, 1976. p.270.

<sup>117)</sup> 暴徒編冊 全南北警秘, 第126號.

<sup>118)</sup> 暴徒編冊 高秘收 第850號의 1. 1908. 12. 14일.

<sup>119)</sup> 以上 統計는 統監府 統計年報.

<sup>120)</sup> 暴徒編冊 全北古警秘發, 第160號, 1907. 12. 14.

<sup>121)</sup> 暴徒編冊 全北古警秘發, 第159號, 1907. 12. 16.

<sup>122)</sup> 暴徒編冊 全南警秘收, 第389號, 1908. 12. 15.



라 하고 있으며 또 같은 時期에 靈岩郡 昆一始面 西倉에 온 義兵 14명은 康津郡 古邑面居住 李怡元의 5명이 木浦港으로 輸出한 白米 26石에 대하여 日本人에게 賣却함을 嚴禁한다고 示達하고 있다.

義兵들을 納稅拒否를 의치고 있다. 즉 日本은 1906년 管稅官制 실시와 丁未七條約을 거쳐 徵稅事務는 완전히 日人의 손에 장악되었다. 日帝는 地稅 즉 結稅를 13등급으로 나누어 課稅했고 地方稅로 家屋, 煙草, 酒稅를 新設하였으며 빈틈없는 徵稅規定은 滯納者에 대한 가차없는 督促手數料 및 滯納處分, 財産差押을 실시하여 韓國農民의 破産을 促求하였다. 1908년 11월에 체포된 全南義兵將 申正宇(谷城人)는 “日人은 우리를 誘導한다. 開進한다고 하면서 稅金을 徵收하고 有夫女를 姦한다”고 했으며 1909년 1月 28일 全南警察의 匪徒鎮撫策에 관한 意見書에서는

“現下 이런 狀況下에서는 財務署가 軍隊나 警察의 護衛를 받아 滯納者의 強制徵收를 敢行하고 있는데 其實 財務官吏의 身邊護衛보다는 오히려 軍隊, 警察의 威力를 빌려 強制的 徵稅를 敢行하는 實情이므로 人民은 한층 더 新政에 대해 惡感을 일으켜 徒黨에 몸을 던지는 기회를 준다<sup>122)</sup>”

라든가 또

“今日結錢 非我國之正貢正納 乃倭竊弄 則與者受者 一勿舉論 若或暗相與受 日後入關 則共即砲刑事<sup>124)</sup>”

라 하여 納稅拒否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 義兵들은 富豪家에 대한 憎惡心이 높았으니 沈南一의 檄文中에

“各所の 富豪들이 오로지 利慾을 생각하여 小作米를 賣却하려고 남김없이 積出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甚히 痛嘆할 일이다. 小利를 取하여 크게 倭賊의 軍糧을 救하고 韓國의 窮民은 飢餓之境에 다다랐다. 今後 한 뒷박의 쌀이라도 실어내는 자는 詳探促致하여 倭와 同罪할 것이다. 너희 富豪는 利慾을 생각하지 말고 各己 身命을 생각하여 更히 罪를 犯치 말 것이다<sup>125)</sup>”

라고 하였고 倡義大將 金 倡義所榜중에서

“富饒民이 如此災年에 土稅를 濫捧하며 45年 延滯私債를 督償하니 只爲謀富之計하고 不顧國事하니 一切 斬之할 事<sup>126)</sup>”

라 하여 日帝에 협력하는 地主層에 대한 전쟁이라는 일면을 보이기 시작한다.

“豪富子弟 各惜軍糧 而樂貢于倭<sup>127)</sup>”

123) 暴徒編冊 全南警秘收, 第156號, 1909. 1. 28.

124) 暴徒編冊 湖南義所 朴廣告.

125) 沈南一의 檄文中에서.

126) 編冊 全警秘收, 第532號, 1907年 12月 12日.

127) 編冊 光警秘苑, 第1162號, 1908年 12月 17日 湖南義所 朴廣告.

또 義兵들은 非協力的인 寒豪農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즉

“外西面(全南 同福郡)長及各村舍書各洞頭民에 令함. 該面各村의 富豪者로부터 收納한 糶는 軍需糧米로 差押하던 일일이 이를 舍音에게 積置하여 軍用 있을 때까지 待期하다. 만약 명령에 違背하여 遺漏의 弊가 있으면 軍律을 免치 못할 것이니 注意하다<sup>128)</sup>”

는 것이었다. 그리고 義兵의 鬪爭對象이 日人보다는 韓人이었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즉 1909년 1월~4월간의 全南義兵이 입힌 損害를 日人和 韓人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129)</sup>.

즉 日人の 死傷者數는 모두 31명이지만 韓國人은 71명에 달하였으며 또 재산상의 피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30)</sup>.

	死	傷	計
1月	10 1	1 1	11 2
2月	15 1	8 8	23 9
3月	11 2	7 3	18 5
4月	14 9	5 6	19 15

月\被害額圓	金錢	物品	建物	計
1月	700 3	550 2,468	— 400	1,258 2,871
2月	146 —	497 262	660 —	1,303 262
3月	448 25	731 893	1,100 500	2,279 1,417
4月	941 206	911 110	200 100	2,052 416

즉 日本人 재산상의 被害總額은 4,967圓인데 반하여 韓人 被害總額은 6,892圓에 달하고 있다. 또 同期間에 義兵에게 사살되거나 傷害 毆打 拉致 또는 放火 件數를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131)</sup>.

즉 日人은 하나도 없는데 비해 韓人은 157명이나 된다. 또 1910~12간 日人和 韓人死傷者를 비교해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sup>132)</sup>. 즉

1910~12년간 韓日人 死傷者(全國)

이것은 日帝가 後期義兵을 火賊化 또는 草賊化 운운한 所以이며 湖南地主層이 義兵

	毆打	拉致	放火	計
1月	17 —	13 —	— 2	30 2
2月	27 —	20 —	4 —	51 —
3月	21 —	20 —	— 6	41 6
4月	18 —	21 —	2 2	41 2

1910	601 39
1911	185 10
1912	13 1

<sup>128)</sup> 記錄 暴徒檄文, 第4輯 18.

<sup>129)</sup> 編冊 全南暴徒出沒被害其以一覽表(1909. 1~4月).

<sup>130)</sup> 編冊 全南暴徒出沒被害其他一覽表(1909. 1~4月).

<sup>131)</sup> 編冊 全南暴徒出沒被害其他一覽表(1909. 1~4月)

<sup>132)</sup>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을 이병이라蔑稱한所以인 것이다.

## VII. 結 言

韓末 義兵抗爭은 우리나라의 反日 獨立獨爭이었다. 軍事的으로는 國際政治上 거의 勝算 없는 流產戰爭이었다. 全體的으로는 獨立戰爭을 승리로 이끌만한 國內産業의 成長 發展이 缺如되어 있었으며 客觀的으로는 歐美列強이 이미 日帝의 韓國併合을 保障하고 있던 터라 어떤 外國援助도 기대할 수 없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으로 日帝는 한국의 獨立戰爭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단결된 韓國民衆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長期戰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義兵抗爭은 地域的으로는 남쪽은 濟州道에서 북쪽은 間島, 露領, 沿海州까지 義兵抗爭이 마치지 않는곳이 없었고 義兵抗爭에 동원된 人員과 物資는 莫大하였으니 수천명의 義兵將과 수만명의 義兵의 이름은 극히 한정된 소수이며 아직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이 묻혀있는 것이다. 또 義兵隊列에 참가한 계층은 다양하였으니 儒生 兩班을 비롯하여 農民 勞動者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사회층이 義兵將 또는 의병으로 활약하여 日本軍警과 日本人 그리고 賣國奴 등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전선없는 전쟁이 한반도를 휩쓸었다. 牧歌的인 마을이 焦土化되고 平和的인 良民이 虐殺되었으며, 親日賣國의 一進會員이 誅殺되고 地主兩班의 財物이 약탈되었으며 交通은 杜絶되고 商業은 마비되었다. 對日農産物 輸出은 激減되고 日帝商品의 농촌침투는 중단되었다. 在韓日人들은 농촌에서 都港으로 쫓겨나고 그들의 土地投機는 萎縮되었다. 모든 末斷機關의 行政機能은 마비되고 稅金徵收는 저지되었다. 小作料와 고리대금이자 등의 징수가 중단되고 郡守 面長의 사표가 빈번하였다. 그리하여 日帝는 韓國에 대한 經濟的 諸收奪을 저지당하였고 韓國併合에의 捷路를 잃었다.

1909년 8월 23일자 上海에서 발간되는 英字新聞이 전한 韓國特別通信은 義兵戰爭으로 말미암아 日帝가 겪은 극히 적은 한 斷面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韓國은 실로 재미있는 나라다. 日本人은 韓國에서 經濟的 勝리를 얻었다고 하지만 병력을 증가하거나 官吏를 投入하지 않으면 實業界가 일종의 마비중에 걸린다. 통제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諸사업이 정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것이다. 實例를 들면 木浦의 한 市街에는 日本商店이 櫛比하게 있었으나 오늘날 이들 상점은 廢店狀態에 있다. 또 仁川에는 日本商人의 1/5은 실패해서 이미 本國으로 돌아갔다 한다. 韓國民의 奮起의 愛國心과 日本人 自身에게도 책임이 있는 義兵에 의한 交通杜絶은 前記 商業去來의 한 장애가 되었음에 불과하다. 이리하여 駐屯兵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한국민이 市場을 멀리하게 되었다.”<sup>133)</sup>

이제 韓末 湖南地方 義兵의 制限性을 살펴보면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義兵運動의 後期에 와서 從來의 兩班, 儒生에 의해 主導되었던 것이 平民 즉 農民

<sup>133)</sup> 記錄 1908~1909 憲兵隊機密報告 憲機 1684號.

兵士, 貧民 그리고 知識人들의 義兵將이 많이 나타나 義兵抗爭도 大衆의 性格을 띠게 된 것은 初期義兵에 비하여 一步 發展된 것이나 진정한 의미의 自主獨立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도 指導層은 舊思想의 오랜 굴레속에 얽매어 왔으므로 새로운 義兵抗爭·方式의 形成에는 미숙했다. 어느 義兵의 倡義文이나 檄文에도 한결같이 日本侵略者를 규탄하고 그 走狗를 痛迫하는 句節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義兵이 국가를 위해 무기를 든것은 사실이나 그 국가의 개념은 既成社會體制를 부정하고 새로운 社會秩序의 건설을 위해 일어난 革命戰爭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舊來의 社會秩序를 파괴하고 變革하려는 外部勢力에 반대하는 일핏보아 復古의이고 保守의인 전쟁이었다.

둘째, 組織的, 一體的 行動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내일의 自主와 獨立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아래 또 오늘의 鬪爭가운데서 民族的 主體力量을 기르는 育成하고 民族的 氣質을 發顯시킬 운동은 물론 民族獨立이 全體意識 覺醒에서 부터 이루어 진다는 것을 自覺한 운동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義兵將들과 義兵사이의 계급적 限界에서 오는 團合이나 호응이 적었고 義兵將 相互간의 反目과 紛爭이 있었다. 예를들면 海南義兵將 秋琪燁는 1909년 7월 31일 海南郡 島山에서 部下 6명에게 살해되었는데 그 原因은 大元寺戰鬪에서 많은 部下 즉 68명중 24명의 戰死者와 3명의 被逮者를 낸 때문이라 한다<sup>134)</sup>.

또 全北義兵將 李大局이 部長 鄭大洪에게 피살되었다<sup>135)</sup>. 사건의 經緯는 李大局이 部長 鄭大洪의 火賊行爲를 問責하여 鄭의 소유 銃器 12挺을 押收하자 이에 鄭은 全北 茂長에서 李大局을 살해하였다. 또 李大局의 部將인 朴道京은 鄭大洪을 李大局을 斬殺한 罪人이라 하여 다시 사살하였다. 또 전남의 全海山은 羅州郡 伊老面에서 黃道玄을 火賊行爲를 했다고 銃殺했고 自身은 朴民洪에게 오른쪽 어깨 2개소와 왼편허리 1개소에 銃傷을 입었고 앞서 咸平郡 龍珠에서 部隊解散을 선언하다. 部下들로부터 세차려 銃擊을 받아 겨우 生命을 건진 일도 있었다. 또 1909년 3월 14일 梁鎮汝와 金有彭의 交戰이라든가<sup>136)</sup> 昌平郡 長南面 東山里에서 火賊行爲를 행한 30명 義兵을 銃殺한<sup>137)</sup> 등의 사건이 있었다.

셋째, 그들이 사용한 武器의 部足과 義兵들의 訓練部足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新式武器로 裝備한 日軍과 警察을 대하기엔 너무 약했다. 日軍은 1905년에 제작된 38式 小銃을 사용하였고 필요하면 機關銃까지 사용하였다. 여기에 비해 義兵들은 火繩銃을 갖었다. 有効射距離 400야아드(약 800m)에 每分 8~10發을 사격할 수 있는 日本軍의 小銃앞에 義兵들은 먼저 火繩에 불을 붙여들고 다른 한손으로 鐵丸과 火藥을 비벼넣어 사격했고 有効射距離는 불과 20步 내외였더니 義兵들은 매양 檄文에 器機不利를 慨嘆하고 있다. 全南義兵將 金容球는 그의 「義所日記」에서 雙溪寺의 日兵 40명을 義兵 100여명으로도 능히 奇襲하지 못한 이유를 “我軍雖曰百餘名 然素無訓練且兵器不利 彼賊機械精利 實難可當<sup>138)</sup>”이라고 하

<sup>134)</sup> 編冊 全南警發, 第1407號, 1909년 7월 31일.

<sup>135)</sup> 編冊 羅警秘收, 第123의, 1號 1909年 11月 12日.

<sup>136)</sup> 編冊 光警秘收, 第112號, 1909年 3月 15日.

<sup>137)</sup> 編冊 光警秘收, 第135號, 1909年 2月 21日.

<sup>138)</sup> 後陰 金先生 新謄錄, 卷之一, 義所日記.

고 있다. 또 全北 任實의 儒生義兵將 李錫庸은 비단오면 火繩銃을 쓰지 못해 大敗한 戰鬪經驗을 “三月夜에 本郡(任實)의 倭를 攻하여 捷하기 始得하더니 未幾에 天이 大雨함에 我軍이 技를 施할 바 無한지라 賊이 機를 乘하여 擊하니 將卒이 多傷하고 氣勢가 勿殺<sup>138)</sup>”했다고 했다.

또 “我軍雖百餘名 然素無訓練”이라던 金容球部隊의 경우에도 1907년 9월 16일밤 文殊寺에서 日軍의 기습을 받았는데 “軍中大驚 不知所爲”의 형편이었고 同 26日에는 高敞邑을 占領中 日軍의 不意의 습격을 받았는데 “賊兵五十餘名. 乘我軍之醉睡 入城放砲”하게 되자 “諸將軍卒 蒼黃顛倒 不知所爲 或逃或隱 勢無奈向”의 지경에 이르렀고 여기서 金容球는 從者不過十八의 大敗를 당했다.

이밖의 것으로 日軍의 수많은 討伐과 密偵, 韓人巡查補助員, 韓人特設巡查隊의 暗耀 그리고 一進會員을 虐殺하여 敵의 앞잡이를 증가하게 한 것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抗爭은 통해서 主體意識은 더욱 強靱성을 갖게 되었고, 民族이 團合해야 할 必要를 느끼게 되었으며, 獨立이 단순한 感情的 否定的인 것 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투쟁방법도 民族獨立은 主體力량의 育成에서 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肯定的 힘의 培養 내지는 近代思想의 鼓吹라는 방향으로 나아가 여기에서 비로소 조직적인 集團을 바탕으로 한 民族勢力의 組織化 運動이 胎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覺醒을 위해서는 言論, 出版, 文化運動과 後進養成을 위한 教育運動이 곳곳에서 일어나 3. 1 운동과 같은 民族全體의 大衆的 抗爭方式으로 展開하게 된 母胎가 되었다는 점에서 義兵抗爭을 높이 評價하는 것이다. 그리고 平民出身의 義兵將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들이 領率하는 義兵들의 투쟁목표 가운데 그 檄文中에 納稅拒否, 賣國官吏誅殺, 日本商人에게 米穀賣買禁止, 富豪財産沒收, 貧民救恤 등 점차 反官僚의인 樣狀을 들어내게 되었으니 이는 民族運動에 있어서의 커다란 質的인 變化라고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서울신문사 出版局, (1946)  
 黃玟,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刊 (1955)  
 獨立通動史 卷1, 義兵抗爭史,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刊 (1970)  
 韓國獨立運動史, 卷1, 國史編纂委員會刊  
 李一龍譯, 秘錄 韓末 全南義兵戰鬪史, 全南日報出版局 (1977)  
 朴性壽, 抗日的 義兵. 韓國現代史, 卷3, 新丘文化社 (1972)  
 朴性壽, 1907~10年間の 義兵戰爭에 대하여 韓國史論文選集, 卷6, 歷史學會編 (1976)  
 金義煥, 日帝의 朝鮮侵略과 初期義兵 鬪爭巧 東國史學 9, 10 合輯 (1969)  
 朴殷植, 韓國痛史. 三乎閣刊 (1955)  
 成大慶, 韓末의 軍隊解散과 그 蜂起 成大史林, 卷1.  
 李炫熙, 韓末의 抗日義兵運動管考 高麗大 文理大學報, 卷4.  
 金義煥, 義兵運動의 思想的 側面 韓國思想, 卷8, 韓國思想研究會編 (1966)

<sup>138)</sup> 記錄 1909年 暴徒檄文, 第4輯.

崔昌圭, 義兵運動을 通해 본 民族意識의 成長過程 韓國政治學會報, 卷3 (1969).

義兵運動史資料集, 卷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刊 (1970)

暴徒討伐誌.

暴徒에 關한 編冊.

趙恒來, 舊韓末 義兵. 社會團體의 抵抗運動 東洋文化 13.

## A Study of Uppyeng at the end of Yi Dynasty —emphasizing of Honam district—

**Se-Kyu Kim**

*Dept. of liberal arts*

*Gwangju Health Junir College*

### >Abstract<

The end of Yi dynasty was the whirlpool of accomodating Wijungchksa(Rejecting the occident and protection of Confucism) thought and acceptance of west thought conflicted with antinomistic.

The conscious of crisis appeared Repealing power agaist Japanese imperialist. This thought was popular with this opportunity by Eulmisabyun (Queen Min was assassinated by a group of Japanese hoodlum).

Honam district Uppyeng was risen by Giwuman in Chang-sung at 1896 and continued till 1909. The Uppyeng of this district was very strong compared with any other. But 1909 by the schedule of Namhandae-Tobul (The great suppression of south district) by Japanese Army Gen. Uppyeng or Uppyeng were captured. After all come to an end of action of Uppyeng. At any rate Japanese suppressed Uppyeng by far superior military power. But Japanese received loss of life and propriety, and Uppyeng war was vary variety classes attending. Just Yusayang (confucian), Yangban (the two upper classes), peasant and workers Striking Nationed traitor.

A pastoral Village was burnt to the ground, the good people were slaughtered, the member of II Chin-hoe were slaughtered, property of Land lord were plundered, Traffic was held up (suspension), Commerce was stagnated, agriculture product was declined from remarkable decrease of export to Japanese Village permention of Japanese goods was stopped, Japanese were expelled from Village to city or port, Japanese land Speculation was withered.

Every terminal office's administrative affair: was paralytic, stopping tax collection, farm rent, and a loan at high interest, After all, Japan was to stop every economic extortion and loss a nearer way to the annexation of Korea. But this Uppyeng did not destroy the traditional Social order, on account of lack of arms, training and deficiency in their organizing ability and many suppression by Japanese Army, and so on, Uppyeng was defeated by Japanese Army.

Honam district Uppyeng failed to repel the Japanese invasion. But through this resistance to Japan. We gain strong and tough National Identity and That enabled us to enhance our organizing ability and to stage of effective movement toward our independence.